2020년 5월 16일 (4.24) 토요일

한과정보

코로나 19 현황

총확진	日확진	총사망
1643	143	32

기준환율 : ₩ 1,230.50 송금시 : ₩ 1,218.50 팔때 : Q 7.55 살때: Q 7.85

대사관 : 2382-4051~55 이메일 : embcor.gt@mofa.go.kr 대사관긴급전화 : 3368-9333 한인회 : 2445-6461

15일 코로나-19 감염자 125명 증가해 총 1,643명

5월 15일 과테말라 코로나-19 감염자가 125명 증가해 1,643명으로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1명, 완치된 환자도 6명 늘어나 135명으로 증가했다.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15일 하루 1,233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일부에서 계엄령을 발령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과테말라가 무책임한 사람들의 손에 있었다면 지금쯤 거리에는 시신들이 가득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전체를 봉쇄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며, "(자신이)완벽한 대통령은 아니지만 올바른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Publinews

보건부, 무증상이나 경증환자 300명 호텔로 옮겨 외부와 격리

보건부는 코로나-19 감염자 중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를 호텔로 이송해 치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도 15일(금) 저녁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300명을 오늘(토)부터 호텔로 옮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과정보 홈페이지 개설!!!
WWW.HANGUA.NET



과테말라 / 중남미 주요뉴스

대통령은 무증상자나 경증 코로나-19 환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 추가 감염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호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얼마나 들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도 지난 3월초 대구에서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며 병원내 입원시설이 부족해 지자 병원치료를 받지 못 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에 정부는 경증환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무증상 환자와 경증환자를 외부와 격리 시키고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마련한 바 있다.

한과정보 : 박성진

기존 귀국 항공편 모두 취소 됐지만 25일 대체 항공편 운항

제트 여행사는 "기존에 예정되었던 15일, 16일, 23일 및 30일 귀국 UA항공편이 모두 취소 되었으나 UA 항공이 25일 대체 항공기를 운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과테말라 정부의 전격적인 통행금지 확대 시행으로 최소된 UA 항공의 항공편이 25일 항공편으로 대체되었다.

제트여행사는 "UA항공사 측이 운행하던 비행기는 미국이 자국민을 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운행하던 임시항공편으로 이를 이용해 우리 교민들도 미국을 거쳐 본국으로 갈 수 있었으나 과테말라 정부의 갑작스런 통행금지 강화로 기존 항공편이 모두 취소되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15일 오후 UA항공사 측이 과테말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옴에 따라 취소된 항공편을 예약했던 우리 교민들도 해당 비행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를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교민들은 25일 낮 12시 비행기로 미국 휴스턴과 로스엔젤레스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한과정보 : 박성진

한인회, 한국산 마스크 온라인 수요조사



과테말라 한인회는 한국산 KF94 마스크와 같은 우수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교민들을 위해 한국정부의 허락을 받아 재외국민을 위한 마스크를 구입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이를 위해 한국산 KF94 마스크 공동구매를 위한 온라인 수요조사를 5월 15일부터 05월 22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한과정보 E-mail : jiny74@gmail.com Tel. 2479-1394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한국산 KF94 마스크 공동구매를 위한 온라인 수요조사 <-- 클릭해 주세요

현재 한국산 KF94마스크는 전면 수출금지되어 있으나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은 가능하며, 한국의 마스크 수급 상황도 점점 나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국산 마스크 공동구매는 마스크 수급이 열악하고 구매가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적 시책으로 마스크 반출을 승인받는 것인 만큼, 판매의 목적은 불가능하며 현지인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한인회는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구입을 원하는 단체나 회사명을 기입하고,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응답 회수가 1회로 제한되며, 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해 신중하게 기입해야 한다.

한인회는 마스크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 수량을 파악한 후 생산업체를 선정하고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반출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하다며 마지막 한국정부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하면 구매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회는 구입하게 될 KF94마스크의 가격은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 가격 1,500원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1인당 8매까지 구매 가능하며 구매가 최종 확정되면 가격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과정보: 박성진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주민들

정부의 방역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14일 저녁 갑작스럽게 발표된 3일간의 지역 봉쇄령과 시장 등의 영업제한 규정에 과테말라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다.

Suchitepéquez시의 Samayac시장은 15일, 정부의 시장 폐쇄방침에도 불구하고 평일처럼 손님을 받았다.



정부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동을 금지하고 약국과 음식 배달 등을 제외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Stéreo 100에서 공개한 Samayac시장 동영상에는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평소처럼 북적이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동영상이 게재되자 많은 이들이 정부의 방침을 지키지 않은 시정부를 비난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정부를 비난하는 이들은 정부의 발표로 15일 아침부터 동네 상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며 사람들이 굶어 죽기를 바라는 것인가라는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아래 동영상은 정부 발표에 화가 난 한 주민이 대통령을 향해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 해달라"는 남성의 울분에 찬 고함이 녹화된 영상으로 소셜네트워크 Facebook과 Whatsapp에 퍼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오전에는 Interamericana 도로 127km 지점과 130km지점에서 재래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2시간 동안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Soy502

라 이 프

수면내시경 할 때 헛소리 하는 이유는 뭘까?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수면내시경을 할 때 잠꼬대를 하듯 중얼거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등장한다. 이처럼 수면내시경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헛소리를 하는 과학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수면 마취, 숨 쉴 수 있을 만큼 의식 남아있어

수면내시경을 할 때 진행하는 수면 마취는 그 명칭 때문에 '완전히 잠든 상태로 마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마취제를 투약하면 스스로 호흡을 유지하지 못하는 '호흡부전' 상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마취제는 환자가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은 의식이 유지될 정도로 투약한다. 수면제가 아니므로 실제 뇌파를 살펴보면 잠들었을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의학 용어로는 수면 마취를 '의식하 진정요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렇게 약하게 마취된 상태에서는 환자에 따라 간단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기도 한다.

수면 마취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은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이 있는데, 이를 '3대 수면마취제'라고도 불린다.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형묵 교수는 "케타민은 주로 30분 이내로 짧게 마취할 때 쓰인다"며 "수면내시경을 할 때는 주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프로포폴은 다른 마취제보다 마취유도와 회복력이 빨라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다. 보통 2~8분만 지나도 마취에서 깨어나고, 소변으로 모두 빠져나와 몸에도 전혀 남지 않는다.

코골이 심하다면 마취 전 의사와 상의해야

부작용 때문에 수면 마취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안심해도 된다. 마취제를 의사의 지시하에 적정량 투약했을 경우, 중독이나 부작용 위험성이 거의 없다. 마취제를 오·남용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술자와 감시자를 두지 않고 환자 의지대로 투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인은 프로포폴 중독이나 부작용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면 마취 중 갑자기 약효가 떨어져 깨어날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형묵 교수는 "환자의 움직임이 갑자기 격렬해지거나,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 등 마취에서 깬 듯한 현상이 보이면 마취제를 더 투약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도 비만 ▲호흡기 장애 ▲목에 방사선 치료나 수술을 받은 경험 ▲심한 수면무호흡증(코골이) 등이 있는 사람은 수면 마취를 하기 전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보다 호흡부전이 나타날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형묵 교수는 "코골이가 심하다는 것은 의식이 없어지면 호흡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경우 수면 마취를 하기 전 의료진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하루 2~3잔 '이것' 마시는 사람, 뱃살 더 적다

하루에 커피를 2~3잔 마시는 사람은 체지방량이 더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앵글리아 러스킨대 연구팀은 영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이 이들의 커피 섭취량과 체지방량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매일 2~3잔의 커피를 마신 여성은 커피를

마시지 않은 같은 여성보다 체지방량이 3.4~4.1% 더 적었다. 매일 2~3잔의 커피를 마신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복부 지방량이 1.8% 적었다.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커피 섭취량이 체지방을 줄인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커피는 착한 지방인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 체중 감량 효과를 준다고 분석한다. 또한 커피 속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소화 활동을 돕는다.

연구를 주도한 스미스 리 박사는 "이번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속에는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라며 "비만 및 만성질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커피 성분을 이용한 다이어트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영양학 저널(The Journal of Nutrition)'에 최근 게재됐다.

5월은 혈압 측정의 달. 2030도 꼭 확인하세요

질병관리본부는오는 17일 '세계고혈압의 날'을 맞이해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5월은 혈압 측정의 달(MMM, May Measurement Month)'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고혈압 인지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고혈압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강조하고자 "젊은 고혈압을 찾아라"를 주제로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하여 혈압 측정 이벤트 운영 등 기존 현장 캠페인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편욱범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조명찬 MMM 위원장이 고혈압관리를 위한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응원 영상을 촬영하여,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SNS 등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또한, 고혈압 인지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SNS로 혈압 측정사진 인증 릴레이를 시행하고, 올해의 주제인 "젊은 고혈압을 찾아라"에 관한 유튜브 공모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혈압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 중 하나이며,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6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니,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에서 고혈압 인지율(고혈압이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비율)이 낮고 질환 관리가 가장 저조한 실정이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규칙적인 치료.관리가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수치 확인을 통하여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를 권고했다.

걸음마는 언제 해야 적당? 늦어지면 '발달장애' 의심…

전체 영유아와 소아 중 5~7%는 발달장애를 겪는다. 어릴 때 겪었던 발달장애는 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발달장애는 빨리 진단할수록 그만큼 좋아질 가능성도 커지므로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을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하자. 특히 생후 1개월, 4개월, 7개월, 10개월, 18개월에는 시기 별로 정기적인 발달검사를 받는 게 좋다.

만약 생후 100일까지 목을 가누지 못하거나, 5~6개월까지도 스스로 뒤집기를 못 하고, 8~9개월까지 혼자 앉거나 앉혀도 스스로 지탱하지 못한다면 '대운동 발달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보통 10~12개월에는 무언가를 붙잡고 설 수 있고, 15~16개월 경에 걸음마를 시작한다. 만 2세 경에는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만 3세에는 한 발로 잠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 만 4세가 되면 한 발로 뛸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작은 근육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미세운동 발달장애'는 다음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다. ▲4~5개월에 작은 장난감을 손으로 쥐지 못한다. ▲7개월에 물건을 한 손에 쥐지 못한다. ▲12개월에 엄지와 검지로 작은 물건을 잡지 못한다. ▲18개월에 장갑, 양말 등을 스스로 벗지 못한다. ▲24개월에 4~5개 이상의 블록을 쌓지 못한다. ▲3세에 원을 보고 그리지 못한다. ▲4세에 십자와 사각형을 보고 그리지 못한다.

사회심리나 언어 발달장애를 걱정하는 부모도 많다. 사회심리 발달장애는 또래와 비교해 유독 잘 웃지 않고, 달래기 어렵거나, 비협조적이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의심해야 한다. 언어 발달은 일반적으로 18개월이 넘어도 말보다 몸짓을 중심으로 의사 표현을 하거나, 만 2세에 두 단어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고, 만 3세에 문장으로 말하지 못할 때 의심할 수 있다. 다만, 언어 발달은 개인차가 크게 작용하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의 오해와 달리 발달장애는 '병'이 아니라 장애이다. 따라서 치료를 받아서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발달을 개선해야 한다. 간혹 특수치료가 아이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부모가 있는데, 이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이의 특성, 자원, 성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성 발달을 1차 목표로 하고, 부모가 그런 환경을 잘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흔 넘어 생긴 목 통증… 3개월 지속되면 '목디스크' 의심

목이 불편하거나 아플 때 혹시 '목디스크' 아닐까 걱정을 한다. 목 통증은 전 인구의 60%가 한 번쯤 경험하는 증상이다. 일시적인 것은 괜찮지만, 40대 이상에서 3~6개월 이상 목 통증이 계속된다면 목디스크일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40대 이상 목 통증 반복되면 목디스크

고려대구로병원 척추신경외과 박윤관 교수는 "목 아픈 사람의 3~5%는 목디스크 환자"라고 말했다. 목에는 7개의 척추 마디와 30개 이상의 관절이 밀집해 있어 질환이나 외상에 취약하다. 특히 앉아서 얼굴을 고정한 채 반복 작업을 하는 사람이나, 체질적으로 경추에 디스크 변성이 잘 생기는 사람은 목디스크 위험군이다. 박윤관 교수는 "40대 미만의 젊은 사람은 목 근육의 긴장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일 뿐 목디스크일 가능성은 적지만, 40대 이후에 반복되는 목 통증은 목디스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0대 이상에서 ▲목이나 등 주변 통증 ▲팔·손목·손가락 저림 ▲목 돌리기 어려움 등의 증상이 3~6개월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서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40대 미만인 사람의 목 통증은 근육 긴장과 함께, 일자목·거북목일 가능성이 높다. 일자목·거북목은 당장 목디스크와 큰 관련은 없지만, 10~20년 후에는 병이 될 수 있다. 강북연세병원 최일헌 병원장은 "목은 C자 커브를 이뤄야 정상인데, 목이 일자가 되면 디스크로 가는 압력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눈을 쉬게 해야 목 통증 개선

목 통증이나 목디스크 모두 습관과 관련이 있다. 최일헌 병원장은 "프로그래머, 치과의사 등 앉아서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목디스크가 많이 생긴다고 의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박윤관 교수는 "목 통증이나 디스크를 예방하려면 눈을 덜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보기 위해 집중하다보면 목에 긴장을 하며, 거북목 자세나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자세에서 무언가를 보면 목의 부담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목을 과도하게 숙이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목에는 최악이다. 목 근육, 인대, 뼈는 눈이 쉬지 않는 한 계속 긴장하므로 수시로 눈을 감고 쉬는 것이 도움이 된다. 평소 앉은 자세도 중요하다.

허리를 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스마트폰도 눈높이로 들어 사용해야 한다. 긴장된 목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수시로 하자. 고개를 아래, 위, 양옆으로 떨구고 근육이 당길 때까지 늘여준다. 잠깐해서는 안 되고 15초 이상 충분히 늘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정 치

주호영 "5·18 폄훼·모욕 발언 죄송.. 논란 반복 안돼"



"개인 일탈이 당 전체 생각인 양 확대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협조 약속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고,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했던 일들도 또렷이 기억한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한 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5·18을 이틀 앞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개인의 일탈이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재생산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을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면서 "5·18을 기리는 국민 보통의 시선과 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정 단체화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5·18 민주묘역을 조성한 것도, 5·18 특별법을 제정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것도, 모두 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시작됐다"면서 "통합당은 YS 정신을 이어받은 유일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의 '5·18 망언'을 솜방망이 징계하는 데 그쳐 관련 단체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 "20대 국회 유종의 미 야당 적극적 협조 부탁"

"나흘간 통과시킨 법안 숫자가 성적으로 기록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개최된다. 남은 며칠이 20대 국회 전 기간의 성과를 결정짓는 시간이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법안, 'n번방' 방지 법안, 헌법 불합치 등 한시가 급한 법안들은 물론, 과거사법 등 여야가 합의에 이른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 발의되고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1만5261건이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 처럼 꼭 필요하지만 계류 중인 법안들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자동으로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나흘의 시간이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의 숫자가,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한 성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민주당은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일 분 일 초를 아껴 협상에 임할 것이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안 도와주는 통합당에 "의리도 배짱도 없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우파 정치인은 이해력과 상상력이 부족해서 이번 선거에 대한 확신도 없다"며 자당 비판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그래서 자신의 것을 정당하게 지키려는 용기와 의리와 배짱도 없는 거냐"며 "하물며 좌파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 편이면 지켜준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전날 통합당 소속 이준석 최고위원과 김세연 의원을 겨냥해 '좌파'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5월 15일이 되면 그동안 숨죽이던 좌파들의 준동이 시작될 거라고 했지 않냐"며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입을 먼저 열더니 (염태영) 수원시장, 탁현민(청와대 행사기획 자문위원)에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이준석, 김세연까지 난리들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송이 불가능해서다. 뉴스들이 아주 가관"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언급한 '5월 15일'은 공직선거법 상으로 '선거무효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날이다.

"진중권은 좌파 부처님" 홍준표, 'X개도 아니고' 비판에 맞대응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간 고사성어에 빗대 지적
"좌파에서 배척 당하고 아무리 갈 곳이 없다지만"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이 16일 전날 야당 주최 토론회에서 자신을 'X개'에 빗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좌파의 부처님"이라며 점잖게 맞대응했다. 조선 조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간 고사성어를 인용해 부적절한 발언임을 지적하면서도 "우파 쪽에 기웃거리는 것은 참으로 보기 딱하다"며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다.

홍 당선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모두 부처로 보이고 ×개 눈에는 모든 사람이 모두 ×개로 보이는 법이다. 나는 진중권 씨를 좌파의 부처님으로 본다"고 적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 미래통합당 주최 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홍 당선인을 겨냥해 "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똥개도 아니고 집앞에서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당선인은 "(진 전 교수가) 좌파에서 배척 당하고 아무리 갈 곳이 없다지만 우파 쪽에 기웃 거리는 것은 참으로 보기 딱하다"며 "그만 자중하라. 분수 모르고 자꾸 떠들면 자신이 ×개로 취급 당할 수도 있다"고 거듭 꼬집었다.

홍 당선인은 이번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통합당 지도부 결정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 대권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등을 겨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왔다. 진 전 교수는 이러한 홍 당선인을 "똥개도 아니고"라고 비판했고, 홍 당선인은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간 고사에 빗대 이날 맞대응한 것이다.

"1980년 박근혜, 총선 출마 원했다" 전두환도 지원

어제(15일) 미국 국무부가 기밀 해제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문건은 당시 28살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듬해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출마를 원했단 사실도 담겨있었습니다.

1980년 2월, 전두환 씨가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지 2달 뒤 작성된 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고인이 된 아버지의 고향에서 출마하길 원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암살당한 대통령의 딸에게 야망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문건이 작성되고 1년 뒤인 1981년 3월 25일에 치러졌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문건에는 전두환 씨가 이를 원한단 내용도 적혀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할 때 박 전 대통령 가족과 친해진 전두환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음 과정을 밟으라고 재촉했다는 겁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의 출마를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가 선거 이슈로 떠오르면 총선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발간한 자서전에서 "정치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종종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다"며 당시 스스로 정계 입문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황교안 겨냥해 "미쳐 날뛰며 공천권 휘둘러"



자신의 공천 배제 등에 대해 당 지도부 겨냥해 작심 발언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등 지도부의 '공천 개입'에 대해 "미쳐 날뛰며 공천권을 휘둘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도 선거구에 통합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공천 배제)된 뒤 서울 중·성동갑에서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선을 치렀고, 경선에서 탈락해 21대 총선 출마가 좌절됐다.

김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지역구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정치 일선을 떠나지만,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대륙아주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 다시 손을 잡고 정겹게 인사드릴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공천 배제된 것과 관련해 황 전 대표 등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권을 잡은 몇 명이 미쳐 날뛰며 공천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저까지 희생당한 데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김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인연을 맺어왔다. 제가 받은 사랑과 정성을 잊지 못한다"며 "부족한 저에게 후원금까지 보내주신 분들께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세월이 가더라도 꼭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당명 미래한국당으로?" 보수 합당 '삐그덕'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조속한 합당을 선언했지만 어떻게 합당할지, 방법론을 두고는 '동상이몽'입니다.

모 정당인 통합당은 흡수 합당을 생각하는 데 반해, 미래한국당은 '당 대 당' 통합을 거론하더니 아예 당명도 '미래한국당'으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주말 오전 일찍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언뜻 합당 후 미련 없이 떠나겠다는 말 같지만, 머릿속에 소속 의원과 사무처 요원들이 머무른다, 범여권은 비례정당이 수두룩한데 우리만 사라지다니 분하고 억울하다,

행간마다 자기 몫을 지키겠다는 뜻이 읽힙니다.

모 정당인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21대 국회 개원 전까지 신속한 흡수 합당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한다고 저희는 합의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당 대 당' 통합을 띄우고 있습니다.

합당한 당명도 미래한국당으로 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에서부터,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요직 배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유철 / 미래한국당 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 당명이라든가 양쪽 의원님들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사무처 요원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요. (흡수 통합입니까? 당대당 통합입니까?) 정당법상 당대당 통합이죠.]

미래한국당은 합당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26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원 대표의 임기를 8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왜 8월 말이냐는 질문에는 친여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의 행보도 지켜봐야 하는 등 고려할 것이 많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8일 당원 투표로 합당을 가결한 지 닷새 만에 민주당이 시민당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13일) :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민들과의 약속 이행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통합당으로서는 비례정당이 어깃장을 놓는 모양새로 합당이 불발될 경우, 정치적 실리도 챙기지 못하면서 총선 직후 합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까지 저버리는 셈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한과정보 E-mail : jiny74@gmail.com Tel. 2479-1394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경 제

코로나19로 다들 힘들다는데 은행은 호실적, 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현황

(단위 : 조원, %, %p)

구 분	'17년	'18년	'19년	1Q(A)	2Q	3Q	4Q	'20년 1Q[P](B)	증 감(B-A) 금 액	증 감(B-A) %
이 자 이 익	37.3	40.5	40.7	10.1	10.3	10.2	10.1	10.1	△0.0	△0.2
순이자마진(NIM)	1.63	1.67	1.56	1.62	1.61	1.54	1.48	1.46	△0.15	
예대금리 차이	2.03	2.06	1.95	2.02	2.01	1.94	1.83	1.84	△0.18	
이자수익률[1]	3.23	3.43	3.39	3.51	3.50	3.37	3.18	3.10	△0.41	
이자비용률[2]	1.20	1.36	1.44	1.49	1.48	1.43	1.35	1.26	△0.23	

1) 이자수익률 : 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 2) 이자비용률 : 원화예수금 기준 평균금리

1분기 특수은행 제외 일반은행 순익 2.6조원
전년 동기대비 2%↑..3월 가계·기업 대출 증가 영향
저금리로 순이자마진 줄었지만 이자수익은 동일 수준
4월부터 중기·자영업자 대출 대폭 늘며 리스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분기 영업실적은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 등이 대출을 늘려 이자수익이 이전 수준을 유지한 덕분으로 경기악화가 오히려 은행 수익에는 도움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최근 늘어난 대출의 상당부분이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로 그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분기에도 은행들이 호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올해 1분기(1월~3월)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조원, 17.8% 감소했다.

다만,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0.1조원,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역시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한 올해 1분기와 비교하자면 '감기'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의 길목에 들어선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이유는 간단하다. 역대 최대 수준의 이자이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0.1조원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금감원은 "순이자마진(NIM)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하로 사상 최저 금리를 기록하면서 순이자마진은 지난해 1분기부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46%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기업과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줄어든 순이자마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자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은행권의 기업과 가계대출이 전달에 비해 각각 9.6조원과 18.7조원 늘어났다.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증가폭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

특히, 회사채 등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던 대기업까지 은행 대출에 의존하면서 대기업 대출이 전분기 대비 10.7조원이나 늘었다. 전년 동기에는 대기업 대출이 오히려 2.3조원 감소한 바 있다.

이처럼 1분기, 특히 3월에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낮은 순이자마진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은행들이 역대급

순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2분기에도 이같은 호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4월달만 보자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기업대출은 27.9조원 증가하며 한달만에 사상 최대폭 증가 기록을 갱신했다.

다시말해 대출 규모 확대로 안정적인 이자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돼 있다. 그러나 리스크는 이전에 비해 훨씬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대기업 대출은 전달에 비해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코로나19로 국내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대출 10.8조원 포함)이 전달의 2배 이상인 16.6조원이나 증가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과거 기업대출 상당수가 시설투자 자금이었다면 지금은 운영자금이 대부분이라 그만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상황이 악화됐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리스크도 그만큼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美,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 전면 봉쇄 韓 반도체 영향은



美 기술 활용한 해외기업의 반도체 공급도 미국 허가 받아야
TSMC,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15조원 투자.."타격 불가피"

"비메모리 반도체에 초점..메모리 주력인 삼성·SK 영향 크지 않을 것"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해 `반도체 공급` 전면 봉쇄에 나서면서 최근 미국에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힌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의 기술이 반영된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전면 봉쇄하는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에서 지난해 화웨이 및 114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그러나 화웨이가 파운드리에 생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 기반의 반도체를 계속 공급받아오자, 초강수를 둔 셈이다. 앞으로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반도체 기업이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웨이도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나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를 구입하거나 반도체 설계를 활용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교롭게도 이번 조치는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극자외선(EUV) 기반 5나노미터(nm·10억분의 1m) 공정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밝힌 지 얼마 안돼 나왔다.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은 내년에 착공해 2024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TSMC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미국 반도체 공장에 약 120억 달러(약 14조 75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TSMC는 애리조나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이 5나노 기술을 통해 월 2만장 규모의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며, 1600여개 이상의 첨단 기술 전문 인력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생태계에서 수천개의 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화웨이의 핵심 공급자인 대만 TSMC에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밖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는 인텔이나 퀄컴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고, 월스트리트저널은 TSMC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공장에서 미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칩과 다른 소프트웨어도 판매가 차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는 화웨이가 설계

한 비메모리 칩에 초점을 맞춘 만큼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TSMC가 미국 내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면서 삼성전자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4나노 기반의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 오스틴에 운영하고 있지만, EUV 기반 7나노 이하 초미세공정은 화성 V1 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TSMC가 애플과 퀄컴, 엔비디아, AMD 등 주요 반도체 고객사들의 미국 내 생산 물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도 오스틴 공장 증설 등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형마트도 줄줄이 폐업 "8년 직장 잃어 막막"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폐점을 앞두고, 옷 한 장에 3천원씩 하는 폭탄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밀리면서, 코로나라는 악재까지 겹쳐져, 지난 20년간 쇼핑계 강자였던 대형마트 매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70% 가격 인하, '마감 고별 정리' 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린 가운데, 매대 앞은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던 이른바 '땡처리 세일'.

다음달 폐점을 앞두고 재고물량 처분에 나선 겁니다.

[송인흥/손님] "1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이거 (점퍼) 하나 사고, 이것도 이것도 사려고…" ("이건 얼마예요?") "2만 원. 싸지, 메이커도 있으니까…"

폐업을 진행하는 매장이다보니, 이렇게 진열대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마트에 입점한 상점들도 폐점과 함께 문을 닫게 됩니다.

정규직과 달리 폐점과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다 (나이) 70씩 돼가지고… 용역이니까." ("어머니, 얼마나 계셨어요?") "8년요. 제가 제일 조금 있었어요. 15년, 13년 다 그래요. 5명이 (청소일) 하거든요."

올해 안에 폐점이 예정된 롯데마트는 16곳.

이마트 역시 지난해 매장 3곳을 없앴습니다.

대형마트의 매출은 해마다 줄어 5년전 6천억원대였던 이마트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천5백억원을 기록했고, 롯데마트도 5년째 적자 행진 중입니다.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업체에 치이는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올해 실적도 크게 악화된 상황.

대형마트 업체들마다 온라인 쇼핑을 강화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의 구조조정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소매업 종말 오나.. 美 100년 기업도 코로나에 쓰러졌다



118년 역사의 미국 중저가 백화점 체인 'J.C. 페니'가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이달 들어서만 미국에서 4개 대형 소매 체인이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코로나19(COVID-19) 위기가 소매업 종말을 앞당긴다는

우려를 불러온다.

100년 이상 美 중산층 입혀온 JC페니, 코로나에 쓰러지다

지난 15일(현지시간)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JC페니가 이날 텍사스주 휴스톤법원에 '챕터11(미국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을 신청했다. '챕터11'은 우리나라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하다.

회사 측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 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채권자들과 합의하고 있다"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846개 점포에 대한 폐점이 (향후 회생절차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화점 문을 영구 폐쇄하진 않겠지만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고된 셈이다.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채권자들로부터 4억5000만달러(5537억원)를 추가로 빌리는 방안을 조율중이다.

JC페니는 1902년 설립된 백화점으로 1973년 전국에 20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세를 보였다.

JC페니는 코로나19 확산 전에도 이미 고전중이었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고객들이 많아진데다 월마트 등 다양한 대형 할인점들도 우후죽순처럼 성장해 업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회사는 2011년 3억8900만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 대부분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7년 소폭의 흑자(100만달러)를 기록했을 뿐 올해(2월 결산 기준)에도 2억6500만달러규모의 순손실을 냈다.

아울러 지난 2월1일 기준 장부상 36억달러의 장기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지난달 15일 만기 도래의 부채 이자 상환, 또 지난 7일 만기 도래의 부채 이자 상환의 납기를 맞추지 못했음을 밝혔다.

외신에 인용된 최근 법원에 접수된 파산신청 서류에 따르면 약 86억달러의 총자산과 80억달러 이상의 총부채가 보고됐으며 회사는 현재 5억달러의 현금을 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 솔타우 CEO는 "이번 팬데믹이 닥칠 때까지 우리는 개편 전략에 따라 회사를 재건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었다"며 "우리 노력은 이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지만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를 통해 금융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고객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JC페니는 3월18일부터 전국 점포 문을 닫았고 경제 재개 조짐이 보이는 최근에야 41개 점포 문을 열었다. 이는 전체의 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美 4월 지표에서 드러난 최악의 소비심리…백화점 47%↓·의류점 89%↓

CNN에 따르면 JC페니는 이번 달 들어서만 파산 신청을 한 네 번째 전국 규모의 소매업체다.

지난 4일 '제이크루'가, 7일에는 고급 백화점 체인 '니만 마커스'가 지난 10일에는 주로 지방에 점포들을 갖고 있는 '스테이지스토어'가 파산신청을 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소매판매 급감이 결정타였다.니만 마커스도 113년 역사를 자랑한 곳이다.

15일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6.4% 줄었다. 3월(-8.3%)의 두 배에 달하는 감소폭이었다. 1992년 통계 발표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율로 당초 시장이 예상한 -12.3%도 뛰어 넘었다. 그 중에서도 4월 백화점 매출은 47% 감소했고 의류점 매출은 특히 89% 급감했다.

다만 5월 들어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단 징후는 긍정적이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73.7로 전월 71.8(확정치) 대비 반등했다.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69.8(마켓워치 기준)도 웃돌았다.

한편 팬데믹 이후에도 소매업종이 혁신을 꾀하지 않는 한 생존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 마케팅학과의 칼린다 우칸와 조교수는 "팬데믹 불황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매로의 전환을 가속화중"이라고 말했다.

UBS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소매점 폐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팬데믹으로 잘 자리 잡은 소매점과 고전하는 곳들 사이 격차는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 회

서울 '이태원發 확진' 최소 93명.. 4차감염 추정사례도



클러버→'관악구 노래방' 접촉자→직장동료→딸 노원 2명·송파 2명 추가되며 서울 확진자 735명

서울에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93명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부터 시작해 꼬리를 물고 이어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며 서울구치소 교도관에 이은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 추정사례까지 나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90명으로 집계됐었다.

전날(15일 0시) 이후 은평·용산·서대문·관악·강남구에서 각각 1명의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당초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됐던 강서구민 1명이 이태원 클럽 관련자로 재분류됐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던 강북구민 1명도 클럽 관련자로 다시 분류되며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날 노원구와 송파구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각각 2명, 1명 추가로 발생했다. 특히 노원구는 '4차 감염' 추정사례가 나왔다.

노원구에서는 홍대 주점에 갔었던 강서구 확진자와 직장동료인 43세 여성이 확진됐다. 여기에 그의 18세 딸도 확진됐다.

구 28번 확진자인 공릉2동 거주 43세 여성은 지난 11일 화랑대역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로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12일에도 똑같이 출근했으며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꼈다.

13일에도 회사에 출근했다가 직장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오후 2시11분쯤 퇴근했다. 이 확진자는 이날 오전 콧물과 인후통, 머리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증상 등이 있었다.

14일 오전 11시10분쯤 자차로 을지병원을 찾아 검체를 체취한 결과 확진됐는데, 을지병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재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16일 오후 2시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 여성은 강서구 31번 확진자인 직장동료와 접촉해 감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서구 확진자는 홍대주점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이태원 클럽 방문자인 관악구 남성 확진자에게 노래방에서 옮았던 것으로 확인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로 분류된 이다.

또 이 확진자의 18세 딸도 양성 판정을 받아 구 29번 확진자가 됐다. 18세 딸은 15일 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16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18세 딸의 감염이 서울구치소 교도관에 이은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 추정사례다. 이태원 클럽에 갔던 관악구 남성이 강서구 남성에게, 강서구 남성이 다시 노원구 43세 여성에게 전파했고 이 감염이 18세 딸까지 이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 결과 최종 확인되면 서울에서 발생한 첫 4차 감염사례가 된다.

시 관계자는 "(순서상으로 보면) 4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파구 문정1동에 사는 27세 남성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다른 구 확진자의 직장동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45번 확진자인 이 남성은 지난 11일 목이 칼칼한 증상이 발현됐고 이날 오후 2시50분쯤 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후 14일까지 집에서 머무르다 15일 다시 구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뒤 16일 양성 판정이 나와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 밖에도 송파구에서는 해외 유입 관련 사례도 나왔다. 구 44번 확진자인 오금동 거주 22세 여성은 지난 12일 멕시코에서 입국한뒤 집에 머무르다 15일 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진행했고, 16일 확진돼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로써 서울 지역 전체 확진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731명이던 것에서, 추가로 나온 노원구 2명과 송파구 2명을 더해 총 735명이 됐다.

한편, 동작구에서는 재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방동 거주 30대 남성이 이날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3월에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됐던 남성이다.

김언경 민언련 대표 "언론, '내로남불'이 가장 큰 문제"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김언경

세월호 참사 이후 '기레기'라는 말이 고유명사로 자리 잡더니, 요즘에는 '기-승-전-언론'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지극히 정파적이고, 기득권 옹호적이고, 냉전·분단 지향적 언론이 모든 문제의 결론이라는 지적이다. 참 통렬한 지적이고, 뼈아픈 언론 비판이다. 5월 20일은 '기자의 날'이다. 이날은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군부의 언론검열에 맞서 제작 거부에 돌입했던 날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언론을 가장 매섭게 비판하는 시민단체다. 민언련은 1984년 해직 기자와 진보적 출판인이 '민주·민족·민중 언론을 향한 디딤돌'을 표방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서 시작됐다. 1986년 기관지 <말>은 '보도지침'이라는 군사정권의 언론통제와 이에 굴종하는 기성 언론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유명해졌다. 90년대 이후 미디어비평·교육·선거보도 감시운동 등을 통해 시민단체로 거듭났다. 민언련은 '미디어 탈곡기'라는 이름으로 매일 언론을 탈탈 털며 감시·비평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민언련 탄생 36년 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와 김언경 대표(52)가 임기 2년 공동대표에 선임된 것이다. 보통 민언련 대표는 언론인 출신이나 현직 언론학자들이 비상임으로 맡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에 순수 시민운동가 출신 상근대표가 탄생했다. 이는 그동안 언론 감시·비평이 '동업자 출신 대표'의 눈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그는 지상파에서 날카로운 언론비평 단골 출연자로 자리 잡았다. 김 대표를 5월 11일 서울 마포 민언련 사무실에서 만났다.

시민운동가 출신이 상근대표 맡아

-민언련에서 언론 활동가 출신 첫 상근대표다. 소감은 어떤가.

"사실 걱정이 많다. 그동안 민언련 대표는 겸직이자 명예직으로 월급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상근자였지만 잠깐 있었고, 내가 정식 월급을 받는 사실상 첫 상근대표다. 월급을 축내지 않는 상근대표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고민이다. 언론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할 일은 많은데 사람 손은 달린다. 상근자가 13명인데 일당백을 해도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회원을 1만 명 정도로 늘리는 작업부터 하려 한다. 내가 회원 배가의 아이콘 아닌가.(웃음)"

-지난 3월 대표가 되자마자 맡은 사업이 창간 100년을 맞는 조선·동아에 대한 비평운동이었다. 언론노조·자유언론실천재단 등 많은 단체가 같이했지만, 민언련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것 같다.

"조선·동아 100년을 '곱게 보낼 수 없다'는 취지였지만, 우리는 '손발 부문을 하자'는 생각이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

<조선 동아 100년>이라는 방대한 책을 만들었지만, 디지털화가 안 돼 있었다. 우리가 국회도서관에서 당시 보도를 모두 확인해 <조선 동아 100년 거짓 보도 100년>이라는 이름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우리는 비교적 젊은 회원들이 많아 퍼포먼스 등 활동도 재미있게 하려 했다."

-요즘 정치·경제·통일 등 모든 문제는 결국 언론개혁으로 귀결된다는 '기-승-전-언론개혁'이라는 말이 많다. 요즘 언론, 뭐가 문제인가.

"너무 많아서(웃음)… 한 마디로 '내로남불'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언론은 오로지 자신의 정파적 입장에서 재단하려 든다. 권력이 비판·견제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기준이 없다. 최근 정대협 보도도 할머니의 실제 주장과 보수언론의 보도는 결이 다르다. 일부만 과장해 보도하고 있다. 그런 과장·왜곡 보도에 지친 국민이 화가 나 '기-승-전-언론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른바 개혁·진보언론도 문제가 많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가장 현안이다.

"자본으로부터 독립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지금 모든 언론사가 생존 문제에 걸려 있다.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종편에 유튜브까지 가세하면서 광고시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언론은 언론사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찌라시' 제조사로 남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진정한 언론이 되려면 자본과 선을 그어야 한다. 이게 기성 언론사에 무리라는 점을 알지만,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 지원 '아직 아니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문제 언론은 보수언론, 특히 그 회사의 종합편성채널(종편)이다. 종편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온적이다. 심지어 불법 설립 사실이 드러난 종편도 허가를 취소시키지 못했다. 정부도 언론개혁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김 대표는 "민언련도 방통위를 비판하는 성명도 많이 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어설프게 건드릴 바에는 방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신문사는 모두 형식상 주식회사다. 합법적 범위에서 영업해 생존하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은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좀 다르다. 공영방송도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미 종편에 준 중간광고 특혜도 공영방송에 주고 있다. 그런데도 신임 MBC 사장은 'KBS처럼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공영방송 지원에 적극적이지만 '아직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지금 MBC가 국민에게 시청료를 달라면 '차라리 없애 버려라'라고 할 수 있다"면서 "채용 성차별과 방만한 경영, 비정규직과 고충 분담은 안 하면서 시청료를 달라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요즘 '레거시 미디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 언론을 그리 부르는데 여기에 언론학자가 가세해 '레거시 미디어는 정통이고 품위가 있으니 보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물론 일부 국가는 정부가 신문사를 지원하고, 우리도 신문배달을 정부가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의 본질은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진실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다. 값싼 신문용지와 저임금 배달원에 의존한 미디어는 무한정 정보를 쌍방향 소통하며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유튜브·넷플릭스 등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전자·통신의 발전은 앞으로 또 다른 전달 매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언론은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지 전달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운동은 수단이 본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언론개혁은 지금껏 권력과 자본으로 독립 관점에서 주로 봤다. 물론 그 문제는 여전하지만 최근 가짜뉴스 재생산, 특히 채널A 기자나 KBS의 김경록 PB 인터뷰 논란 등은 기자 개인의 자질과 역량 문제로 보인다.

"요즘 <경향신문>에도 그리 지적받는 기자가 있다.(웃음) 기자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하는 직업이다. 청와대 고위층이든, 검찰총장이든 취재원의 진실과 의도를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특히 검찰 출입기자는 취재원에 지나치게 밀착되고, 기자 자신이 권력화됐다. '고위층 누구와 친하다'는 것이 자랑이고, 회사는 그것을 기자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다."

-현장에서 보면 기자는 문제의식과 진실규명에 대한 열정 부족하고, 현실(연봉·특권)에 안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는 것 같다. 특히 간부 기자는 '이 사안이 기사가 되느냐,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가'를 빠르게 판단하고 지시해야 하는데 그 판단 준거가 미약한 것 같다. 그 준거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다 보니 성소수자 문제나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서 엉뚱한 기사가 나온다. 기자에게 헌법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맞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이려면 언론이 바뀌어야 한다며 했고, 2011년에는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됐다. 나도 이 작업초기 2년여 동안 참여하면서 기본권과 언론이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인권을 아는 사람은 언론을 모르고, 언론학자는 인권을 몰라 애를 먹었다. 민언련 활동가로 언론운동도 인권관점에서 너무 부족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언론 수용자, 즉 독자의 문제도 심각하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 보듯이 세상은 '자기들끼리' 성격으로 변모했다. 뉴스도 자기들 기호에 맞는 것만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 가짜뉴스를 믿는 '확증편향' 문제도 심각하다. 민언련에서 바람직한 독자의 자세에 대한 교육 혹은 운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확증편향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보수진영은 유튜브로, 진보진영은 팟캐스트로 양분됐다. '기자가 이것이 기사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국민(독자)도 '진실인가'를 판별하려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나 사회에서 미디어 비평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매체비평은 진보 신문조차 하지 않고 방송은 최근 몇 개 생긴 수준이다."

"독자도 '진실' 판별하는 눈을 가져야"

김 대표는 1968년 경기 파주 출신이다. 1986년 경기대 문헌정보학과에 입학, 1990년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다녔다. 1992년 민언련이 시민교육을 위해 만든 언론인학교를 통해 언론에 입문, 자원봉사로 언론모니터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컴퓨터도 부족해 서로 돌려쓰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언론모니터를 했다"고 말했다. 이 자원봉사는 1998년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민가협)에서 양심수 지원사업을 했다. 이때 만난 남규선 민가협 총무가 국가인권위에 가면서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김 대표는 2004년 민언련 모니터부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평시 언론모니터는 물론, 선거보도 감시연대, 불법 경품 공동신고센터 및 신문시장 감시단 활동(2005년), 현재 종편을 가능케 한 언론악법 저지 비상국민행동(2009년),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2010년),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언론단체 단식농성(2014년) 등의 민언련 활동 실무에 그가 있었다. 민언련은 꼭 언론 감시·비평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시민언론상, 성유보특별상, 올해(이달)의 좋은 보도상, 좋은 드라마상 등 언론을 격려하는 사업도 많다.

김 대표는 최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민언련 회원을 대폭 늘리는 '수훈'을 세웠다. 아마 그가 이번에 대표로 발탁된 결정적 요인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김 대표와 김어준씨는 매우 가깝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낙선)이 주장하는 21대 총선 부정투표 주장이다. 김어준씨는 팟캐스트에서 18대 대선에서 심각한 개표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는 2017년 <더 플랜>이라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다. 기자가 '민 의원의 총선부정 보도 검증처럼, 김어준씨의 대선부정 주장도 미디어 탈곡기에 넣어 탈탈 털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선거부정을 검증할 능력은 안 되고… 우리에게 '왜 김어준씨 방송을 모니터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음을 안다. 우리는 신문·TV 모니터에 이어 최근 종편·유튜브로 확대했다. 김어준씨 팟캐스트와 tbs FM 뉴스공장 등 팟캐스트와 라디오까지 모니터하지 못한다. 영화는 더욱 우리 모니터 대상이 아니다."

내일 40주년 기념 미사 염수정 추기경 참석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맞아 광주에서 기념미사가 열립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내일(17일) 저녁 7시 광주 북구 임동 주교좌성당에서 김희중 대주교 집전으로 기념미사를 봉헌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날처럼 살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미사에는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전국의 천주교 주교들이 참여합니다.

동상 · 현판 없애며 '전두환 흔적 지우기'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당시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 씨의 흔적 지우기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에 설치된 동상은 없애기로 했고, 남극 세종기지에 남아 있던 전 씨의 친필 휘호는 철거됐습니다.

대통령 별장으로 이용되다가 지난 2003년 일반에 개방된 청남대입니다.

충청북도는 5년 전 이곳에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의 동상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흔적을 지우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철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강성환 /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장 : 동상 건립 당시는 청남대 대통령 역사 테마 공원 조성을 위한 순수한 취지로 하였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예우가 박탈되어 동상을 철거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산책로 명칭과 생애와 업적을 주제로 그린 기록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철거 작업은 한두 달 정도 추가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극 세종기지 준공 당시 세워진 전 씨의 친필 휘호 동판은 32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가 세종기지에 전 씨의 친필이 동판으로 제작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양수산부에 철거를 요청한 결과입니다.

[혜문 /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 내란죄로 처벌된 사람의 필적을 남극기지처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상징인 곳에 기념비에 세워두는 건 맞지 않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고요.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앞서 국가보훈처도 국립대전현충원에 전 씨의 친필로 남긴 현충문 현판과 헌시비를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서체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잔재가 청산된 건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전 씨가 대전현충원에 기념식수한 일본산 소나무 '금송'이 고사하자 다시 같은 종이 심어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독재자의 흔적은 아직 적지 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국 제

WHO "전 세계 의료진, 소아 괴질에 경계해달라"



"코로나19와 직접 관련 혹은 면역반응 때문인지 아직 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소아 괴질에 대해 전 세계 보건 종사자들에게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진행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적은 수의 어린이가 가와사키병과 독성 쇼크 증후군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다계통 염증성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초기 보고들은 이 질환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증후군을 빠르고 신중하게 특성화하고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날 저녁 소아 괴질에 대한 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소아 괴질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일부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관련성을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도 소아 괴질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코로나19 자체에 따른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 그런 드문 사례가 이 바이러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는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따른 면역 반응의 결과인지 모른다"고 부연했다.

WHO가 소아 괴질에 강한 주의를 당부한 것은 최근 일부 국가에서 관련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사망 사례까지 보고됐다.

영국에서는 지난 13일 아무런 기저 질환이 없던 14세 소년이 숨졌고, 프랑스에서는 15일 9세 어린이가 숨졌다.

두 어린이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WHO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식과 데이터, 지적 재산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몇 주 내로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 만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美 화웨이 목조르자 中 애플 때리기.. 미중 경제 갈등 고조

트럼프 "코로나, 중국에서 멈췄어야"

나라 밖에서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험악한 수준으로 틀어지고 있는데, 오늘(16일)은 또 미국이 중국의 대표 전자회사인 화웨이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전자제품에 필수인 반도체를 아예 못 사게 막아버리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중국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한과정보 E-mail : jiny74@gmail.com Tel. 2479-1394

미국은 지난해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기술 활용도가 25% 아래라면 화웨이에 물품을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개정된 규정은 다른 나라 기업이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제재의 우선 대상으로 화웨이의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타이완 업체 TSMC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화웨이는 믿을 수 없는 판매자이자 중국 공산당의 도구"라며 이번 조치가 허점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코로나 사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중국으로부터 발생했는데, 중국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미국을 비난하며 강력한 반격을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애플과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넣어 제재하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고리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면서 미중 경제 갈등은 다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남미축구연맹 "축구공에 뽀뽀 금지" 방역수칙 결의



앞으로 남미축구에서 선수가 축구공에 키스하는 모습을 보긴 힘들 것 같다. 경기를 마친 후 선수들이 유니폼을 교환하면서 우정을 다지는 것도 예전에나 가능했던 일이 될 듯싶다.

남미축구연맹이 집행부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회의에서 남미축구연맹은 올해 리베르타도르컵 대회와 남미컵 대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은 큰 대회를 치르기로 하면서 남미 회원국이 합의한 또 다른 게임 룰이다.

알레한드로 도밍게스 남미축구연맹 회장은 "코로나19가 수그러들고, 남미 각국의 국경봉쇄가 풀리면 (예정대로) 2개 대회를 치르기로 했다"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코로나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수와 감독, 코치 등이 지켜야 할 1호 수칙은 침 뱉기 금지조항이다. 그간 축구경기 때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 또는 경기장 밖에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감독이 침을 뱉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론 침 뱉기가 원천 금지된다.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나 코치도 바닥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바닥에 코를 푸는 것도 금지다. 페널티킥이나 코너킥을 차기 전 행운을 빌듯 축구공에 키스를 하는 선수가 많지만 앞으로는 남미축구대회에서 이런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선수와 심판들은 예외 없이 발열체크를 받아야 하고, 물은 각각 개인용 버틀(병)을

이용해 마셔야 한다. 벤치에 앉아 대기하는 선수들과 코치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경기시작 전 페넌트 등 기념물 교환하거나 경기종료 후 선수들이 상의를 맞바꾸는 것도 금지된다.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건 허용되지만 반드시 마스크나 얼굴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는 기본이다. 남미축구연맹은 리베르타도르컵이나 남미컵 대회에 출전하는 각국 클럽 선수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검사를 거부하는 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한편 남미축구연맹은 코로나19가 각국 클럽에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 벌금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경기에서 옐로카드를 받은 선수에겐 회당 벌금 250달러,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에겐 750달러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정상보다 30% 낮은 금액이다.

이탈리아, 6월3일부터 해외관광객 받는다



국내 지역 간 이동도 전면 해제
지역 내 이동허용은 이달 18일부터

이탈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봉쇄 조치 두 달여 만인 내달 3일부터 국내외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더로컬이탈리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내달 3일부터 국내외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행정 명령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 관광객들은 입국 후 14일 간의 강제 격리기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내 지역 간 이동 제한도 완전히 해제된다. 같은 지역 내 이동은 오는 18일부터 자유로워진다.

이탈리아는 업무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입출국하는 것은 허용해 왔으나 관광을 위해 이동을 금지하고 2주 간 격리하도록 해 왔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명령에서 입국이 허용되는 외국인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유럽연합(EU)의 법질서를 존중한다"고 했다.

유럽연합(EU)국 내 이동을 자유화 한 '셍겐 협정' 22개국 내 방문객은 격리 기간 없이 입국이 허용될 예정이지만, "역학 위험의 적정성 및 비례성 원칙에 따라 해외로의 이동은 제한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조치와 공공장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처음 봉쇄 조치를 취한 국가다. 지난 3월 말 정점을 찍었지만 주세페 콘테 총리는 재확산 가능성에 점진적 봉쇄 해제를 주장해 왔고 지난 4일 제조업과 도매업 등을 우선 정상화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이날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2만3800여명으로 세계 5위를 기록 중이다. 누적 사망자는 3만1600여명으로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캄보디아, 마지막 코로나19 환자 퇴원 122명 모두 완치

캄보디아에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마지막 환자가 퇴원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36세 캄보디아 여성이 완치돼 이날 오전 병원

을 떠남에 따라 현재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는 없다고 밝혔다.

보건부에 따르면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누적 확진자는 122명으로 집계됐으며, 그동안 12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2일 이후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부는 또 캄보디아에서는 총 1만4천684건의 검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보건부는 코로나19 환자들이 모두 완치됐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코로나 예방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의 코로나19 상황이 검사 건수가 턱없이 부족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 중 경험 공유해 달라" '결' 다른 일본 후생상 발언

일본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담당 장관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그제(14일)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을 거론하며 '방심하는 순간 감염이 확산된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다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 14일) : 한국에서도 나이트클럽의 집단감염 소식을 보셨을 겁니다. 방심하는 순간 한 번에 감염은 확산되는 겁니다.]

이틀 전 아베 총리는 일부 지역의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의 잘못된 사례로 한국을 든 겁니다.

하지만 일본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이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 19 대응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높게 평가하며 협력을 강조한 겁니다.

어제 저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한중일 3개국 보건 수장이 참석한 영상회의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3국 장관 모두 각국의 경험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후생상 발언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1만 6천 명대지만, 검사한 사람이 적어 더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10만 명당 검사 수는 미국의 20분의 1에 못 미칩니다.

한중일 3국은 어제 회의에서 코로나19 현황과 관련 정책을 공유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녹색 세계' "한국, 석탄 · 원전 대신 정보화"

코로나 이후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란 예상이 많죠.

'엔트로피' '소유의 종말'로 잘 알려진 미래학자 리프킨을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만나 미래 예측과 함께 한국에 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독일 남부 필립스부르그의 원자력 발전소.

지난 35년간 전력을 공급해온 이 곳은 지난 14일 냉각탑마저 폭파시켰습니다.

2022년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독일은 석탄화력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메르켈 총리의 자문을 맡았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화석연료 문명이 2028년 종말을 맞을 거라고 예견했습니다.

대신 전기 자동차, 저탄소 건물의 확산, 정보통신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그린 뉴딜'이 화두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모두 화석연료와 관계를 끊고 태양광과 풍력으로 가동하는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은 태양광과 풍력이 훨씬 쌀 것입니다."

태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비용이 급락해 석탄, 석유 수요가 줄고, 따라서 100조 달러에 달하는 화석연료 산업의 자산은 버려진다는 겁니다.

"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데, 그런 것들은 결코 보상받지 못하고 좌초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한국을 걱정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4위, 10년 간 증가율 2위, 석탄발전 보조금 규모도 세계 2위라는 겁니다.

"한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정부의 (석탄 발전) 보조금을 없애야 합니다. 그다음엔 공격적인 탄소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재편에 한국이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과 중국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선 탈원전 정책에 논란이 있다는 얘길 꺼내자 단호했습니다.

"문제는 탈원전 정책에 반발이 있는데요."

"사업적으로도, 기후변화라는 관점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비싼 20세기 기술에 기득권 때문에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젊은이들의 행동도 강조했습니다.

유엔 연설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16살 환경운동가와 미국의 신진 정치인들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공직에 진출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변화하지 않으면, 낡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쓸어내야 합니다. 구세대가 여러분을 위해 뭔가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광주 총성' 기억하는 선교사 딸 "전두환, 사죄하길"



5·18 광주의 진실을 알린 헌틀리 선교사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사람, 바로 그의 막내 딸입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 옆에서 본 광주에 대한 기억을 책에 담았는데요.

10살 소녀에게 1980년 5월의 광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니퍼 헌틀리/찰스 헌틀리 선교사 딸 : 저는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도 봤고요. 그리고 총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들었습니다. 저는 헬리콥터 총성이 무서웠습니다.]

군인들에 쫓기던 시민들을 아버지 헌틀리 선교사가 다락방에 숨겨줬고 그 기억은 40년 뒤 동화책 '제니의 다락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제니퍼 헌틀리/찰스 헌틀리 선교사 딸 :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피신시키려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우리 집에 22명이나 자고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들이닥쳤지만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제니퍼 헌틀리/찰스 헌틀리 선교사 딸 : (어떻게 위기를 넘겼습니까?)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음료수를 대접했고, 군인들은 더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요.]

아버지가 왜 5·18의 비극을 사진으로 남겼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 헌틀리/찰스 헌틀리 선교사 딸 : 아버지는 참상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전두환 씨는 광주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니퍼 헌틀리/찰스 헌틀리 선교사 딸 : 그날의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전두환 씨가 광주 시민에게 사죄하기를 희망합니다.]

광주의 진실을 목격했던 제니퍼 헌틀리 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교민 239명, 3차 특별항공편으로 귀국



"주재원 가족·유학생 등 탑승"..대한항공 임시 항공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제한 조치로 러시아에 발이 묶였던 한국 교민들이 16일(현지시간) 3차 특별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앞서 지난달 7일과 25일 각각 1·2차 특별항공편이 운항한 데 이은 것이다.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인회 등에 따르면 수도 모스크바와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 체류해온 한국 기업의 주재원 가족, 유학생, 장기 출장자 등 239명이 이날 오후 7시 10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924편을 타고 서울로 떠났다.

탑승자에는 모스크바에서 수천km 떨어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등에서 올라온 교민과 고려인(옛 소련권 거주 토착 한인), 러시아 국적을 가진 한국인 배우자 등도 포함됐다.

여객기는 17일 오전 9시 10분께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승객들은 항공사 측이 실시한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탑승 수속을 밟았다.

공항에 나온 교민 가운데 고열 등 감염증 의심 증상으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은 없었다고 한국대사관이 전했다.

교민들은 한국 입국 뒤에도 진단 검사를 받고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모스크바시 등 상당수 지역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취한 전 주민 자가격리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생필품이나 의약품 구매 등의 급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할 수 없다.

주러 한국대사관은 교민들을 위해 특별항공편 편성을 주선했다.

한국대사관은 이날 교민들이 공항으로 이동하는 도중 자가격리 준수를 단속하는 현지 경찰의 검문에 걸릴 것에 대비해 러시아 내무부로 보낸 협조 공문 사본을 메신저 등을 통해 배포했다.

또 공항에 직원 3명을 보내 탑승 수속을 돕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승객에게 한인회와 함께 마련한 마스크와 소독제 등을 담은 위생 키트를 나눠줬다.

한국대사관은 "이번에 출국하지 못한 교민들이 추가로 한국행을 원할 수 있어 5월 30일과 6월 중순 다시 특별항공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하루 1만명대 내외의 급증세를 보이면서 이날 현재 27만2천43명까지 늘었다.

"코로나 피하려고".. 동굴서 은둔 생활한 부부

태국 통사이만의 한 동굴서 러시아 부부 발견
코로나19 확산하자 도심 떠나 은둔 생활

러시아의 한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하기 위해 동굴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일 치앙라이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태국 크라비 관광경찰은 통사이만의 한 동굴을 순찰하던 중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 부부가 동굴 안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다. 동굴에는 텐트가 설치돼 있었고 그 안에는 음식과 조리 기구 등이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경찰은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러시아 국적인 이들 부부는 2달 전 휴양을 위해 태국 라일레이 해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크라비의 한 호텔에 묵으며 인근에서 관광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이 묵은 호텔이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인해 폐쇄되면서 결국 호텔을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 와중에 드론과 카메라 등 소지품을 도난당하기도 했다. 부부는 경찰서를 방문해 도움을 청했지만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항이 폐쇄되면서 러시아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됐다.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줄자 부부는 도심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톤사이만을 거닐던 중 동굴을 발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공항이 폐쇄되면서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어 동굴에서 생활하게 됐다"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이들을 크라비의 한 호텔로 보내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의 고향인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5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미국과 스페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다.

14일 기준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47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감염자가 13만716명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모스크바 외곽 모스크바주에서 918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460명, 니줴고로드주에서 238명 등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 사망자는 93명이 추가되면서 2305명으로 늘었다.

고향으로 가는 죽음의 여정 印노동자 하루 30명 사망

코로나19로 인해 공장문을 닫아 고향으로 돌아가던 인도 노동자들이 16일 하루에만 최소 30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이날 노동자들은 도로와 철도 사고로, 그리고 걸어가다 탈진해 목숨을 잃었다.

한 지역 관리는 "가장 비극적인 사고는 40여 명의 노동자를 태운 트럭이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한 길가 카페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라면서 "이 차량에도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다.

관리는 "트럭 운전자가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량에는 석회가루가 실려 있어 사망자들 중 상당수가 질식사했다"고 덧붙였다.

마디야 프라데시 주에서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이 트럭은 인근 마하라슈트라 주로부터 노동자들을 고향으로 데려가던 중이었다.

인도에서는 지난 3월25일 내린 국가 봉쇄령 때문에 기업체들이 문을 닫아 노동자 수백만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들은 트럭을 타고 돌아가거나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고 있다.

이번달에는 귀향 중 철도 선로에서 잠을 자다가 기차가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16명이 사망하는 비극도 발생했다.

스 포 츠

'라모스 6연승 신호탄' LG, 키움과 DH 2경기 5-3 역전승



LG 트윈스가 키움 히어로즈와 더블헤더에서 2승을 챙겼다.

LG는 16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과 더블헤더 제2경기에서 5-3으로 역전승했다. LG는 더블헤더 제1경기 3-1 완승에 이어 제2경기까지 잡으면서 6연승을 질주했다. LG는 시즌 성적 7승3패를 기록했고, 키움은 4연패에 빠지며 6승5패에 그쳤다.

4번타자 로베르토 라모스가 8회말 동점포를 쏘아 올리며 잠잠하던 타선을 깨웠고, 대타로 나선 채은성과 김용의가 나란히 결승타와 쐐기 타점을 기록하며 경기를 뒤집었다.

선발투수 정찬헌은 6이닝 7피안타 3볼넷 5탈삼진 3실점을 기록하고 승패 없이 물러났다. 2008년 9월 12일 목동 우리 히어로즈전 7이닝 무실점 투구 이후 4264일 만에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고, 2008년 6월 5일 잠실 삼성 라이온즈전 101구 이후 개인 최다인 107구를 기록했으나 승리와 인연은 없었다. 7회부터는 김윤식(1이닝)-여건욱(1이닝)-송은범(1이닝)이 실점 없이 버텼다. 승리 투수는 여건욱이다.

상대 번트 작전에 허를 찔려 선취점을 내줬다. 정찬헌은 0-0으로 맞선 2회초 무사 1루에서 임병욱에게 3루수 앞 번타 안타로 무사 1, 3루가 되자 흔들렸다. 다음 타자 이택근에게 좌익수 왼쪽 2타점 적시 2루타를 얻어맞아 0-2가 됐다.

계속된 무사 2루 위기에서 김혜성에게 다시 한번 3루수 앞 번트안타를 내줘 무사 1, 3루가 됐다. 이어진 박준태 타석 때 2루를 훔치던 김혜성을 잡아 흐름을 끊었지만, 폭투로 3루주자 이택근의 득점을 허용해 0-3으로 벌어졌다.

3회말 반격에 나섰다. 선두타자 백승현과 이천웅의 연속 안타로 무사 1, 2루를 만들었다. 이어 김현수가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날 때 한 베이스씩 움직여 1사 2, 3루가 됐고, 다음 타자 박용택이 중견수 앞 2타점 적시타를 때려 2-3으로 쫓아갔다.

라모스가 8회말 정적을 깨는 동점포를 터뜨렸다. 선두타자로 나서 상대 4번째 투수 양현을 상대로 비거리 130m짜리 대형 중월 홈런을 터트렸다. 3-3 동점.

다음 타자 홍창기가 볼넷을 얻어 흐름을 이어 갔다. 홍창기는 오지환의 희생번트로 2루를 밟았고, 1사 2루 정근우 타석에서는 바뀐 투수 오주원의 보크로 3루를 밟았다. 정근우도 볼넷을 얻어 1사 1, 3루가 된 가운데 대타 채은성이 좌익수 왼쪽 적시타를 날려 4-3으로 뒤집었다. 이어 대타 김용의의 스퀴즈 번트로 한 점을 더 뽑아 5-3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김민 첫 승' KT, 삼성 10-4 격파 시즌 첫 위닝시리즈 확보

KT 위즈가 올 시즌 첫 위닝시리즈를 확보했다.

KT는 16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시즌 2차전을 10-4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올 시즌 3승 7패를 기록했다. 4연패 뒤 2연승으로 시즌 첫 위닝시리즈를 확보했다. 그런가 하면 삼성은 최근 2연패로 올 시즌 4승 7패가 됐다.



선발 투수 김민은 첫 승을 거뒀다.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승리 밑거름이 됐다. 김민은 6이닝 동안 투구 수 97개 4피안타 6탈삼진 3볼넷 3실점을 기록했다. 3회까지 연속 삼자범퇴 이닝을 쓰더니 5회 초는 3실점으로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스트라이크존 적응이나 위기 관리가 돼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KT 마운드는 김민 다음으로 전유수(1이닝 무실점)-하준호(1이닝 1실점(비자책))-이대은(1이닝 무실점)이 나와 승리를 지켰다.

타선 지원도 좋았다. 전날 16안타 14득점으로 화력을 터뜨리더니 이튿날도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KT 타선은 장단 16안타 6볼넷을 얻고 10득점을 냈다. 무려 5명이 멀티 히트를 쳤다. 테이블세터 심우준(5타수 2안타), 김민혁(4타수 3안타)이며 강백호(4타수 3안타 1타점), 멜 로하스 주니어(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3타수 1안타 1타점)이 중심 타순에서 자기 역할을 해냈다. 특히 9번 타자 배정대는 4타수 2안타 3타점으로 만점 활약을 했다.

4번 타자 유한준(1타수 1안타 2타점)은 2회 말 주루 도중 슬라이딩 과정에서 우측 내전근 통증이 생겨 교체됐으나, 뛰는 동안 클러치 능력을 아낌없이 선보였다. 유한준은 구단 지정 병원에서 검진 받을 예정이다.

KT 타선은 삼성 선발 투수 윤성환이 흔들리는 틈을 집중 공략했다. 1회 말 테이블세터 심우준, 김민혁이 연속 안타를 쳐 나갔고, 강백호가 볼넷을 얻어 무사 만루가 됐다. 그러고 유한준이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 선취점을 냈다. 계속되는 만루 기회에서 멜 로하스 주니어가 2타점 적시타를 쳐 달아나더니 후속 타자 황재균이 희생플라이를 쳐 1타점 더 보탰다. 해당 이닝 4득점이 났다.

화력은 죽지 않았다. 2회 말도 2사 1루에서 강백호가 1타점 적시 3루타를 쳐 격차를 더 크게 벌렸고, 후속 타자 유한준이 3루수 옆 빠지는 안타를 쳐 3루 주자 강백호를 불러 들였다. KT 타선은 3회 말 선두 타자 황재균이 2루타를 쳐 기회를 만들더니 2사 3루 때 배정대가 중전 안타를 쳐 승리 추를 더욱 기울였다.

5회 초 삼성 타선은 김민이 잠시 흔들리는 틈을 타 3득점을 내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KT도 곧바로 응수했다. 5회 말 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삼성 3루수 박계범 포구 실책이 나오고 박경수가 삼성 구원 투수 장지훈에게 볼넷을 골라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고 계속되는 1사 2, 3루에서 배정대가 좌전 안타를 쳐 2타점을 더 냈다.

KT는 7회 말 쐐기를 박았다. 1사 1루에서 대주자 송민섭이 도루해 기회를 만들더니 상대 포수 송구 실책 때 3루까지 달렸다. 심우준이 2루수 앞 땅볼을 쳤을 때 잽싸게 뛰어 득점했다.

그런가 하면 삼성은 8회 초 KT가 2루수 뜬공 실책을 저지르는 틈을 타 막바지 추격을 하기도 했다. 1사 2루에서 이원석이 좌전 안타를 쳐 1타점을 냈고, 후속 타자 이학주까지 안타를 치면서 1사 1, 2루가 됐다. 추격 불씨를 살려 놨는데도 후속 타자 박계범, 박해민이 모두 좌익수 뜬공을 쳐 기회를 못 살렸다.

'박민우 역전타' NC, SK 꺾고 5연승.. 단독 1위 질주

NC 다이노스가 짜릿한 역전승으로 5연승을 구가했다.

NC는 16일 오후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SK 와이번스와 원정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NC는 5연승을 질주하며 9승1패를 기록해 단독 선두를 마크했다. SK는 8연패 수렁에 빠지며 1승9패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NC 선발투수 김영규는 6이닝 4피안타(1피홈런) 5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의 침묵으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다. 팀 내 2번째 투수로 나온 배재환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투수가 됐다.

SK 선발투수 김태훈은 7이닝 2피안타 3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불펜진의 난조로 승수를 올리지 못했다. 이어 등판한 김주온은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한 채 2실점하며 패배의 원흉이 됐다. 타선에서는 한동민이 솔로 홈런을 터뜨렸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이날 먼저 기선을 제압한 것은 SK였다. 2회말 1사 후 한동민이 NC 선발투수 김영규의 3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작렬해 선취점을 뽑아냈다. 리드를 얻은 SK는 이후 선발투수 김태훈의 호투로 NC 타선을 봉쇄하며 1점 차 우위를 지켜냈다.

그러나 NC의 저력은 만만치 않았다. 8회초 강진성의 내야안타로 물꼬를 튼 뒤 김태군의 1타점 2루타로 승부에 균형을 맞췄다. 이어 박민우의 1타점 적시타로 승부를 뒤집었다.

역전을 만들어낸 NC는 이후 임정호, 박진우, 강윤구, 원종현을 투입하며 1점차 승부를 지켜냈다. 결국 경기는 NC의 짜릿한 1점 차 역전승으로 마무리됐다.

터커 7타점 & 양현종 2승 KIA, 두산 13-4 대파 설욕



KIA 타이거즈가 전날 대패를 설욕했다.

KIA는 1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팀 간 2차전에서 홈런 포함 7타점을 올린 프레스턴 터커의 맹타와 선발 양현종의 깔끔한 호투에 힘입어 13-4로 승리했다.

전날 패배를 되갚으며 2연패에서 빠져나왔다. 시즌 5승6패. 두산은 연승을 마감하며 6승4패를 기록했다.

1회부터 KIA 방망이가 불을 뿜었다. 박찬호의 내야안타, 김선빈의 우전안타로 만든 1,3루 기회에서 터커가 좌중간 2루타를 날려 두 점을 뽑았다. 이어진 1사2루에서는 나지완이 중월 투런포를 가동해 4-0으로 앞서갔다.

3회는 선두타자 터커가 우월 솔로홈런을 터트려 한 점을 보탰다. 터커는 4회 공격 2사 만루 기회에서 우중간 담장을 맞히는 주자일소 2루타를 날려 8-0으로 승기를 잡았다.

터커는 6회에서도 1사1루에서 좌익수 왼쪽으로 빠지는 2루타를 또 다시 터트려 7타점째를 수확했다. 개인 한 경기 최다 타점이었다. 최형우도 중전적시타로 화답해 10점째를 뽑았다.

최형우는 8회 1타점 2루타, 황윤호는 2타점 2루타를 터트렸다.

두산은 양현종에게 막혀 특유의 응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6회초 1사후 김재환이 2루를 치고 나가자 최주환이 우월 투런포를 가동했다. 9회는 이유찬의 3루타와 허경민과 박세혁의 적시타로 2점을 추격했다.

KIA 선발 양현종은 6회까지 6피안타 2볼넷 7탈삼진 2실점 호투로 시즌 2승을 챙겼다. 박준표와 김명찬이 각각 1이닝씩 책임졌다. 9회 김현준이 2실점했다.

두산 선발 이용찬은 4이닝동안 8안타 2볼넷을 내주고 8실점, 패전을 안았다. 박치국, 권혁, 박신지가 뒤를 이었다.

'에드가 동점골' 대구, 포항과 1-1 무승부.. '첫 승은 다음에'



대구FC가 포항 스틸러스와 무승부를 거두며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다.

대구는 16일 오후 4시 30분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2라운드 경기에서 포항과 1-1로 비겼다.

홈팀 대구는 최영은(GK), 김우석, 정태욱, 홍정운, 황순민, 츠바사, 이진현, 황태현, 세징야, 김대원, 에드가가 선발로 나섰다.

이에 맞서는 포항은 강현무(GK), 심상민, 김광석, 하창래, 김용환, 최영준, 오닐, 송민규, 팔로세비치, 심동운, 일류첸코를 선발로 내세웠다.

전반 시작과 동시에 양 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전반 4분 측면을 돌파한 김대원의 패스를 받은 에드가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강현무의 품에 안겼다. 7분 포항은 심동운의 논스톱 슈팅으로 응수했다. 13분엔 포항의 송민규가 발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최영은의 정면으로 향했다. 치열한 중원의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선수들의 몸싸움도 거칠어졌다. 대구는 계속 측면을 공략하며 포항을 괴롭혔다.

전반 30분 세징야의 중거리 슈팅을 강현무가 가까스로 쳐냈다. 34분 포항의 일류첸코가 시도한 슈팅이 최영은 정면으로 향했다. 양 팀은 전반 막판까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대구는 전반 39분 일찍 교체카드를 꺼내 들었다. 황태현이 빠지고 정승원이 투입됐다.

전반 43분 포항의 선제골이 터졌다. 송민규가 측면에서 연결한 낮고 빠른 패스를 팔로세비치가 쇄도하며 대구의 골망을 흔들었다. 최영은이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 전반전은 포항이 앞선 상황에서 1-0으로 종료됐다.

대구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진현을 빼고 데얀을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다. 후반 7분 문전 앞에서 패스를 주고받던 데얀이 방향만 바꾸는 슈팅을 시도했지만 포항 수비수를 맞고 나갔다. 포항은 심동운 대신 이광혁을 들여보내며 변화를 줬다. 14분 포항은 송민규를 빼고 팔라시오스를 투입하며 두 번째 교체카드를 사용했다.

후반 21분 대구의 동점골이 터졌다. 김대원이 올린 높은 크로스를 에드가가 헤더 슈팅으로 포항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가 오른 대구는 세차게 포항을 밀어붙였다. 25분 대구는 츠바사 대신 김선민을 투입하며 역전골을 노렸다. 38분 에드가가 측면에서 홀로 수비수를 돌파해 강력한 감아차기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맞고 나왔다. 급해진 포항은 오닐을 빼고 허용준을 투입했다.

양 팀은 추가골을 위해 후반전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후반 추가시간 3분이 모두 흐를 때까지 더 이상 득점은 터지지 않았다. 경기는 결국 1-1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한과정보 E-mail : jiny74@gmail.com Tel. 2479-1394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방 송 / 연 예

'놀면 뭐하니?' 비, '깡' 홍수 노 저었다..조롱을 찬사로 바꾼 소통자



가수 비(정지훈)가 '밈'으로까지 발전한 '깡'의 거센 파도를 정면돌파했다.

비는 16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출연해 유재석과 함께 혼성그룹 작전에 참여했다. 유재석은 혼성그룹 후보로 황광희와 헨리를 거쳐 비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비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장 뜨거운 가수다. 그가 2017년 1월 열창한 '깡'을 비롯한 과거의 곡들이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특정 문화)이 됐기 때문이다. 당시 비의 '깡'은 월드스타라는 칭송이 무색할 정도로 흥행에 참패했지만 3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깡'이란 단어는 비가 카메라를 보며 짓는 표정과 몸짓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발전했다.

'깡'의 유튜브 조회 수는 800만을 향해 가고 있다.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러 온 이들의 북적이면서 댓글 수는 8만개를 돌파했다. 다른 히트 곡들의 댓글이 3만개인 것과 비교해 많은 수치다. '깡' 댓글란은 '깡뮤니티', 댓글을 다는 이들을 '깡팸'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도 누리꾼들이 몰리고 있다.

'깡'은 역시 흥행에 실패한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과 함께 그를 온라인에서 가장 뜨거운 '밈 스타'로 만들었다. 통계청이 'UBD'(영화의 실패를 조롱한 단어)를 사용했다 공식 사과 입장까지 내기도 했다.

현재 비와 관련된 현재 밈은 다소 시대와 뒤떨어진 비 특유의 감성을 조롱하는 데서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는 '돈키호테'와 같았던 비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놀면 뭐하니?'에 등장한 비는 자신을 향해 불어닥친 밈 홍수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한껏 노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

유재석은 '깡'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중 꾸러기 표정 금지, 입술 깨물기 금지, 리듬 타기 금지 등 팬들의 조언을 읽어 내려가며 "하루에 몇 '깡'이냐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비는 "하루에 3깡 정도는 한다. 아침 먹고 깡, 점심 먹고 깡, 저녁 먹고 깡, 식후 깡 해야한다"고 답했다.

비는 솔직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누리꾼들은)신기한 것보다는 별로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예전에는 댄스 가수라고 하면 무대를 부숴야 인상적이고 눈빛을 발산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무대 매너가 촌스럽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쏟아진 반응에 대해 "재밌다. 하루에 12깡 하는 사람도 봤다"며 "나는 아직 목이 마르다. 1일 1깡도 모자라다. 주중에는 3깡, 주말에는 7깡하고 있다. 여러분이 힘을 더 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 소스로 재미있게 놀아주시는 게 좋다. 나도 '태양을 피하는 방법' '나쁜 남자' 등 예전 곡들을 영상으로 다시 보게 된다"고 했다.

비가 '놀면 뭐하니?'에 출연한 뒤 '깡' 유튜브 영상에는 이와 관련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팬들과 진정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비를 향해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더킹', 이쯤 되면 간접광고가 아니라 직접광고

SBS 금토드라마 '더 킹: 영원의 군주'의 9회(15일 방송)를 보면서 간접광고(PPL)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이 느껴졌다. 정태을(김고은)이 들고있는 휴대

폰 요기요 앱이 클로즈업되면서, 태을이 "오 애 좀 똑똑한데? 몇 번 시켰다고 이 모씨 입맛을 귀신같이 저격하네" 라는 대사를 했다. 이쯤 되면 간접광고(PPL)가 아니라 직접광고 또는 홈쇼핑 같았다.

'더 킹' 은 이전에도 과도한 간접광고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첫 맛은 풍부하고, 끝맛은 깔끔해라는 광고 카피 같은 문구가 대사로 등장했고, 김고은이 멀티밤을 바르면서, 입술과 얼굴에도 바르는 멀티밤 모르냐고 할때부터 도를 넘은 PPL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시도 때도 없이 치킨을 먹는 이민호는 실제로 치킨 모델이다.

그럼에도 제작진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더 심해진다. PPL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광고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그렇다면 시청자와 언론의 정당한 지적은 수용해야 한다. 과도한 직접광고(PPL)를 간접광고화하거나 자제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게 옳다.

연예 커뮤니티에는 '더킹' 의 과도한 PPL때문에 드라마를 끊었다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과도한 PPL을 계속 한다는 것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처사이자, 제작진이 돈독에 올랐다는 해석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더 킹' 은 이제 후반부에 들어섰다. 드라마 '더킹' 책임자에게 바란다.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 드라마의 맥과 흐름을 끊어놓을 정도의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PPL을 방치하지 말기 바란다. 전파는 공공재이며 지상파는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 지금의 PPL 수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닌가.

온통 韓 예능 '짝퉁', 中 포맷 훔치기 언제까지

"우리 (프로그램) 포맷은 비싸지 않다. 구입을 하시면 가이드를 자세히 해드리겠다. 베끼는 것이 더 힘들다. 비싸지 않으니 가능하면 정품을 구매해 달라."

중국의 국내 예능 프로그램 표절 현상에 대한 CJ E&M 나영석 PD의 일침이다. 중국 방송들의 한류 표절이 몇 년째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목은 물론 프로그램 포맷 전체를 베껴 국민 예능으로 등극하고, 후속 시즌을 제작하는가 하면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실정이다.

정식으로 판권을 수입해서 만든 예능 프로그램은 손에 꼽을 정도고, 중국 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 한국 프로그램을 베끼지 않은 것을 찾기란 쉽지 않다.

PPL(간접광고)이 활성화된 중국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어느 정도 보장된 후에 협찬을 받고,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수 창작'보다는 기본적인 시청률과 화제성이 보장되는 외국, 특히 한국의 인기 예능을 표절하고 있다.

중국의 표절 대상 프로그램은 '1박 2일', '무한도전', '런닝맨', '전지적 참견 시점', '복면가왕, '미운우리새끼' 등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종합편성채널 및 케이블 방송이 제작한 '윤식당', '삼시세끼', '프로듀스101', '효리네 민박', '팬텀싱어'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있다.

중국 후난TV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향왕적생활'은 tvN '삼시세끼' 포맷을 도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시즌제로 제작되며 인기리에 전파를 타고 있고, tvN '윤식당'을 그대로 베낀 후난TV '중찬팅' 또한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중국 동방위성TV가 2015년부터 방송한 '극한도전'은 MBC '무한도전'의 정식 판권을 구매한 CCTV '위대한 도전'과 달리 판권 구매 없이 포맷을 그대로 베낀 예능 프로그램. 이에 더해 최근 방송에서는 tvN '신서유기'의 게임을 그대로 베낀 듯한 내용이 전파를 타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 내용은 물론, 카메라 워킹, 편집 방식까지 그대로 가져다 쓴 듯한 모양새다.

중국 인기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중국 망고TV 웹 예능 '밀실대도탈' 정도가 tvN '대탈출'의 판권을 수입해 방송하고 있다. '대탈출' 정종연 PD는 "일주일 정도 스토리 위주로 컨설팅을 했다. 기술 스태프도 가서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을 컨설팅하고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문가들은 2016년 7월 사드 배치에 즈음한 한중관계 악화로 중국 정부의 해외 방송프로그램 포맷 수입이 제한되면서 중국 방송사의 국내 방송 표절 행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SBS '런닝맨'의 중국판으로 판권을 구매한 뒤 제작,

방송하던 중국 저장위성TV '달려라 형제'는 '한한령'(한류 제한 명령) 이후 제목을 '달려라'로 은근슬쩍 바꾸고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MBC '복면가왕' 포맷 수출 계약을 맺고 방송된 장쑤위성TV '몽면가왕' 또한 '한한령' 이후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약간만 고치더니 이름을 '복면가수를 맞춰라'로 바꿨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까지 총 네 개 시즌에 걸쳐 방송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랜 시간 지속돼온 중국의 프로그램 표절을 해결할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방송 관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프로그램이 표절 제기를 했을 때 유사한 포맷일 뿐이라며 표절을 부정하는 경우가 다수다. 한국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원저작물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의 침해여야만 '표절'이 인정된다. '포맷'을 베끼는 것은 국제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떻게든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데는 공감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대응에 한계는 있지만, 해외 사무소를 통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예능 포맷 바이블' 제작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 표절 논란에 중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중국의 노골적인 베끼기 행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부부의 세계' 원작 BBC "이혼후 여성 삶, 성공적으로 펼쳤다" 축전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16일 마지막 회를 앞둔 가운데 드라마의 원작 '닥터 포스터'가 방영된 영국 BBC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16일 JTBC에 따르면 BBC 스튜디오 CEO 팀 데이비 "'부부의 세계' 성공 소식을 듣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 영국 히트작이 한국에서도 성공해 흥분된다"고 전했다. 이어 BBC 스튜디오의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마크 린지는 "매우 기쁘다. 배우와 제작진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고 축하했다.

'닥터 포스터' 마이크 바틀렛을 비롯한 작가진도 찬사를 보냈다. "'부부의 세계'의 성공은 감명 깊다. 이혼 후 여성의 삶을 스토리 안에서 성공적으로 펼쳐냈다.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이 있다면, 혹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라고 JTBC에 메시지를 전했다.

'부부의 세계'는 15일 방송된 15회 방송이 전국 24.4% 수도권 28.0%(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 비지상파 채널의 역대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또다시 갈아치우며 대기록을 세운 바 있다.

JTBC 측은 마지막 회를 앞두고 지선우(김희애)와 이태오(박해준)의 의미심장한 만남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절박하게 달려온 지선우와 위태로운 이태오의 대비는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선택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지난 방송에서 지선우는 여다경(한소희)에게 이태오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배신과 마주하고도 여다경은 "난 그 여자랑 다르다"며 이태오를 품고 관계를 지키려 했고, 이태오는 이준영(전진서)을 놓지 못하고 집착했다. 이준영의 행복을 위해 이태오를 막아야 했던 지선우는 여다경이 붙잡고 있는 사랑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선우와 여다경은 비슷한 점이 많았고, 이태오는 여다경에게 지선우와 같은 취향을 강요하고 있었다. 사랑이 지선우에게서 여다경으로 옮겨갔듯, 통제받는다고 느끼면 이태오는 언제든 쉽게 감정을 배신할 터였다. "어쩌면 너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지선우의 말에 여다경은 현실을 깨닫고 이태오를 떠났다.

일도, 가정도 모두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된 이태오

와의 관계를 끊어낸 지선우는 이준영과 함께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다. 하지만 "준영이 내가 데려갈게"라는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이준영이 사라지면서, 다시 불안이 지선우를 엄습하고 있었다. 뜨거운 호평 속에 시청률도 폭발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이태오는 모든 것을 잃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지선우에 이어 여다경과의 관계도 산산이 조각 난 이태오는 결국 혼자가 됐다. 지선우를 향한 분노로 일렁였던 눈빛에는 공허함이 가득하다. 하지만 여다경이 떠나고도 반성 대신 지선우를 향한 원망을 토로했던 이태오이기에 그의 행보는 아슬하기만 하다.

다급하게 달려온 지선우의 표정은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끊어내려 했지만,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이어진 사진 속 지선우의 차에 오른 이태오와 착잡한 얼굴로 이를 바라보는 지선우의 엇갈린 감정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지선우는 끝나지 않는 폭풍 속 자신의 세계를 지켜낼 수 있을지, 또 여다경과 파국을 맞은 이태오가 지선우를 소환한 이유는 무엇일지. 심상치 않은 두 사람의 만남이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함께 공개된 최종회 예고편도 예측 불가의 전개로 시청자들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준영이가 잘 버텨줘서 다행이다.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다"는 말처럼 지선우와 이준영은 파국이 남긴 상처를 서서히 회복해가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평안도 잠시다. "설마 또 나타나기야 하겠어요?"라는 고예림(박선영)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이태오는 "전부터 나한테는 너뿐이었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라며 지선우를 붙들었다. 이어 "선우야. 나 보러 와 줄 거야?"라며 애처롭게 손을 내미는 이태오. 과연 지선우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 순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개를 이어온 '부부의 세계'는 마지막 회에서도 '숨멎' 몰입감을 이어간다. 앞서 김희애는 "지선우와 이태오는 서로에게 결코 자유롭지 못한 지독한 관계로 이어져 왔다. 사랑과 증오로 얼룩진 부부 관계가 어떤 끝맺음을 하게 될지 지켜봐 달라"며 "상황적 변화와 감정들이 마지막까지 위태롭다. 모두의 선택에 몰입하며 즐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독하게 엉켜왔던 지선우와 이태오의 관계의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쏠린다. '부부의 세계' 제작진은 "지독하게 얽힌 인연의 끈이 어떤 결과를 남기게 될지, 지선우와 이태오의 마지막 선택을 지켜봐 달라. 치열하게 부딪히고 달려온 만큼, 여운도 깊다. 가장 '부부의 세계'다운 엔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지우, 엄마됐다..오늘 오전 득녀 "산모 · 아이 모두 건강"



배우 최지우가 딸을 출산했다.

최지우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6일 뉴스1에 "최지우가 오늘 오전 딸을 출산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며 이를 알렸다.

소속사 측은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한 상태이고 최지우 배우는 현재 안정을 취하며 회복 중입니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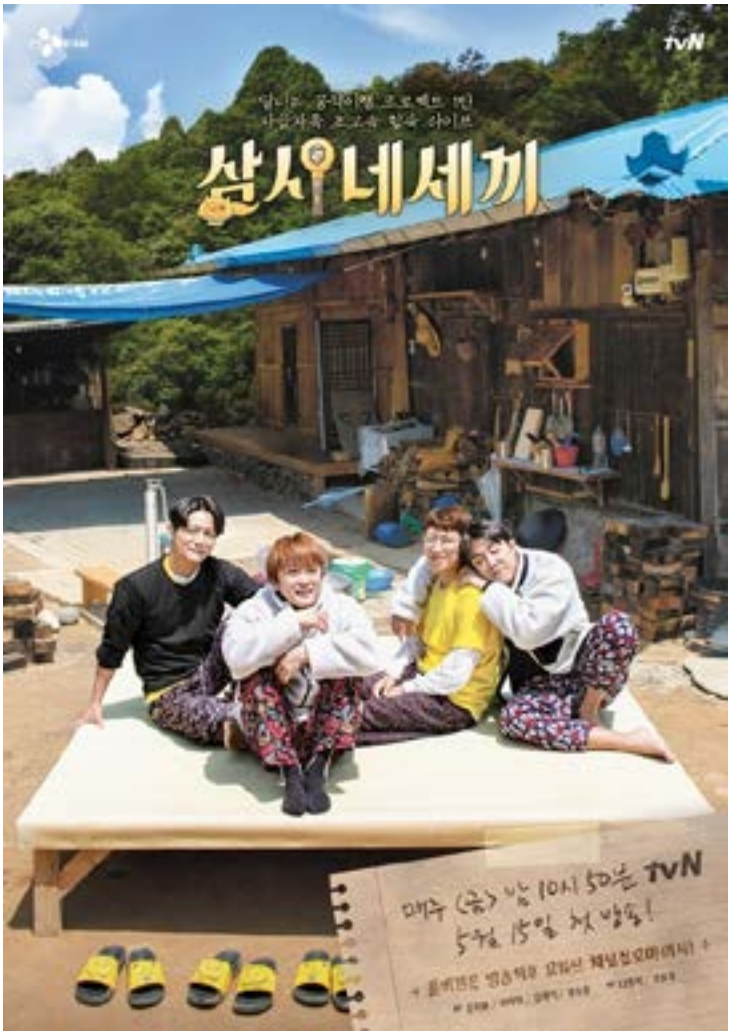
최지우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공식 펜페이지 '스타 지우'에 올린 편지를 통해 출산 임박 소식을 알린 바 있다.

편지에서 그는 "저는 이제 드디어 예정일을 보름 앞두고 있다. 간단히 집 앞에서 셀프 사진도 찍었다. 늦

은 나이에 아이를 갖고 코로나19에 마음 졸이면서 준비를 하니 새삼 대한민국 엄마들이 존경스럽다"면서 "어렵게 출산 준비를 하시는 예비 맘들도 '노산의 아이콘'인 저를 보고 더욱 힘냈으면 좋겠다"라고 인사했다.

한편 1975년생으로 올해 우리나이로 46세인 최지우는 2018년 3월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결혼, 지난해 12월 임신 소식을 전했다.

'삼시네세끼' 첫방부터 '빵빵' 터졌다 나PD조차 지치게 만든 '젝키 에너지'



tvN '달나라공약이행 프로젝트 1탄 자급자족 초고속 합숙 라이프 삼시네세끼'이 첫 방송부터 빵빵 터지는 웃음을 선사했다.

지난 15일(금) 밤 10시 50분 첫 방송된 tvN '달나라공약이행 프로젝트 1탄 자급자족 초고속 합숙 라이프 삼시네세끼(연출 나영석, 신효정/이하 '삼시네세끼')'는 매운맛 '삼시네세끼'에 발을 들이게 된 젝스키스(은지원, 이재진, 김재덕, 장수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본격적인 '삼시네세끼'의 시작 전 제작진과 사전모임을 가지며 서로에 대해 폭로하는 멤버들의 케미스트리가 폭소를 자아냈다.

비활동기에 서로 연락하고 지내냐는 제작진의 물음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연락 없으면 잘 지내나 보다 한다", "가끔 연락 오면 무슨 일 생겼냐며 놀란다"라고 답해 오래된 부부 같은 23년 차 아이들의 면모로 즐거움을 더했다. 또한 멤버들의 생생한 리얼 캐릭터도 살펴볼수 있었다. 다툼의 원인 제공자부터 트러블 중재자, 고집이 가장 센 사람까지 함께 한 시간만큼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젝스키스가 직접 밝힌 각양각색 캐릭터가 눈길을 끌었다.

젝스키스는 '삼시네세끼'를 통해 첫 합숙에 돌입하게 됐다. 합숙하게 됐다는 제작진의 말에 "형 코 골아?, "이래놓고 너는 이 갈잖아"라며 걱정하는 동시에 공격하며 꽉 찬 예능감을 자랑하기도. 은지원과 장수원은 자급자족으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반면, 이재진과 김재덕은 요리에 자신 있어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허술한 반전 매력을 발산했다. 사전모임부터 에너지 넘치는 이들의 모습에 나영석 PD조차 "하지 말까 이거?"라며 지친 모습을 보여 폭소를 유발했다.

방송에 이어 '채널 십오야'에서 공개된 풀버전에서는 '삼시네세끼' 하우스에 간 젝스키스 멤버들의 모습이 틈틈이 엿보여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같은 옷을 맞춰 입고 우당탕 퀴즈를 푸는 모습과 자급자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멘탈 붕괴에 빠지는 모습 등이 예고돼 본격적인 '삼시네세끼'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진다.

연출을 맡은 신효정 PD는 "첫 방송부터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린다.'삼시네세끼'에서 맞이하는 인생 첫 합숙과 자급자족 라이프가 젝스키스를 '멘붕'에 빠트렸다. 그동안 평화로웠던 '삼시세끼' 하우스가 젝스키스와만나 시끌벅적한 '삼시네세끼' 하우스로 재탄생했다. 이들이 어떻게 자급자족 합숙 라이프를 선보일지 본격적으로 펼쳐질 '삼시네세끼' 이야기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tvN '달나라공약이행 프로젝트 1탄 자급자족 초고속 합숙 라이프 삼시네세끼'는 데뷔 23주년을 맞은 젝스키스가 삼시 세끼를 해 먹는 과정을담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밤 10시 50분 방송된다. 5분 방송 이후 유튜브 '채널 십오야'를 통해 풀버전을 시청할 수 있다.

여진구, JTBC '괴물' 주연 '호텔 델루나' 이후 1년만



배우 여진구가 약 1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할지 주목된다.

16일 뉴스1 취재 결과, 여진구는 JTBC가 현재 편성을 논의 중인 새 드라마 '괴물'(극본 김수진/연출 심나연) 주연을 제안 받고 검토 중이다.

'괴물'은 JTBC 웹드라마 '힙한선생'과 옹성우 김향기 주연의 '열여덟의 순간'을 연출했던 심나연 PD와 '매드독' 김수진 작가가 의기투합하는 작품으로, 구체적인 편성 시기는 현재 논의 중이다.

여진구가 '괴물'에 출연하게 된다면 지난해 9월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 이후 약 1년 만에 복귀하게 된다. 여진구와 심나연 PD의 섬세한 연출력이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된다.

2005년 영화 '새드무비'로 데뷔한 여진구는 '히트' '일지매' '타짜' '자이언트' '뿌리깊은 나무'에서 아역배우로 활약하다 MBC '해를 품은 달'과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외 대표작으로는 드라마 '써클' '다시 만난 세계' '왕이 된 남자' 등이 있고 지난해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호흡을 맞춘 '호텔 델루나'로 큰 인기를 끌었다. '호텔 델루나'는 12.0%(닐슨코리아 집계)의 자체최고 시청률로 종영, 시청률과 화제성을 다잡았던 만큼, 여진구의 차기 행보가 많은 주목을 받았었다.

한편 드라마 출연에 앞서 예능 출연도 확정한 여진구는 올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동일 김희원과 오는 6월 방송되는 tvN 새 예능 '바퀴 달린 집'에 출연하는 것. '바퀴 달린 집'은 세 배우가 바퀴 달린 집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앞마당 삼아 살아보는 과정을 그리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아이유, 오늘(16일) 생일 맞아 팬클럽과 1억 기부.."마음은 늘 가깝게"



가수 아이유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팬들과 함께 뜻 깊은 기부를 실천했다.

16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공식 SNS에는 기부 증서가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기부 증서에 따르면 아이유는 팬클럽 유애나와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에 각 5160만 원을 기부했다. 5월 16일 생일인 아이유의 생일에 맞춘 금액으로,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전달하며 선행을 실천한 아이유다.

아이유 측은 "5월 16일인 오늘, 아이유 생일을 맞이해 아이유와 유애나가 함께 세상에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침체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닿는 손길들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뜻을 나눠 가진 아이유와 유애나의 이름처럼 몸이 멀리 있는 이 시기에도 마음은 늘 가깝게. 앞으로도 우리 좋은 건 함께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밝혔다.

아이유는 앞서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어린이날을 맞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드 래 곤 라 자 이 영 도

"그런데 말이야. 아까 퍼시발씨는 나보고 간첩이 어쩌니 했는데, 당신들이야말로 저 자이펀인과 왜 함께 다니는 건가? 아, 의심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 전사분 때문에 나처럼 간첩이라는 의혹을 뒤집어쓸지도 모르잖아?"

"아까는 미안했습니다."

"아냐, 아냐. 사과도 자꾸 하면 값어치가 떨어진다오. 난 그냥 내 경험을 통해 자네 일행도 공연히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가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그래도 할 수 없지요. 운차이는 진짜 자이펀 간첩이니까."

"아, 역시… 뭐야?"

암파린씨는 고개까지 끄덕이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들을 바라 보았다. 운차이는 피식 웃었고 샌슨은 히죽 었으며 설명했다.

"하하하. 원래 간첩이었지만 전향했습니다. 국왕 전하의 목숨을 구한 공이 있거든요. 또 그의 신병은 국왕의 형님이신 길시언 왕자님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지요."

암파린씨는 믿어지지 않는 얼굴로 우리들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난 유쾌한 심정으로 그 표정을 즐겼다. 흐음. 암파린씨는 이제 우리들을 굉장한 모험가로 보시겠지? 만일 우리들이 바이서스의 왕자와 드워프들의 노커와 자이펀 간첩에 드래곤 라자가 한 세트를 이룬 일행이라는 것을 알게되면 암파린씨의 얼굴은 어떻게 될까? 난 암파린씨처럼 예언가는 아니지만 그가 대단히 놀라게 될 것이라는 점은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겠군.

"국왕 전하의 목숨을 구했다고? 아니, 자네들 국왕 전하를 만나보셨는가?"

만나보셨는가? 말이 좀 희한하군. 샌슨은 우쭐한 표정으로, 하지만 겸손한 어투로 말했다.

"예? 아, 예. 간혹 만나지요. 지금도 우리 일행 중 몇 명이 임펠리아에 전하를 뵈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아마 비가 와서 천천히 올 모양인가 봐요."

암파린씨는 이제 경악을 넘어서 약간 공포까지 가미된 표정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았다. 하하하. 그런데 갑자기 암파린씨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그럼 말이야… 아냐. 음… 이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뭔데요? 말씀해보세요."

"허어, 이것참. 먼저, 절대로 오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겠나? 화를 내지도 말고 말이야."

샌슨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끼어들면서 말했다.

"오해하지 않도록, 화를 내지도 않도록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것은 암파린씨 자신이잖아요?

"아, 그렇긴 하지. 웃기는 약속을 하라고 했군. 음, 그러니까 말이야. 일단 난 미래를 보네."

"예. 그러시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기도 바쁜데, 참 피곤한 직업이실 듯해요. 진심으로 위로를…"

"아냐, 아냐! 제발 나 말 좀 하세."

"아, 그러세요."

암파린씨는 그러고도 한참 동안 맥주잔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거나 옷 소매를 바로잡거나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아까 저녁의 리테들씨와의 대화에서도 이미 판명되었듯이 우리들은 왠만한 일에는 놀라기도 힘든 모험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군, 그래.

암파린씨는 결국 입을 열었다.

"내가 말이야… 요 며칠 동안은 사우스 그레이드를 주로 돌아다녔지. 거기는 지금 엉망진창이라네."

"그런가요? 음, 풍문에 듣긴 했습니다만."

"그래. 하지만 풍문으로 듣는 것 정도로는 모자라지.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이 가득 쌓인 창고에 불을 지르는 농부들의 모습을 자네가 봤어야 되는데."

드 래 곤 라 자 이 영 도

입을 딱 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와 샌슨은 누가 보면 유니콘 인에 광산이 두 개 생겼다고 생각할 정도로 입을 크게 벌렸다가 간신히 말을 만들어 내었다.

"불을 질러요? 농부가? 곡식에요?"

이건 진짜 트롤 산수 공부하는 소리다. 드워프가 보석을 때려 부순다고하는 말만큼이나 웃기는 말이잖아? 농부가 곡식에 불을 질러? 운차이 마저도 나이프와 나무토막을 내려놓고서는 팔짱을 낀 채 암파린씨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암파린씨는 손짓발짓을 하면서 말했다.

"전선 지휘관들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기 시작한 거지. 여차하면 사우스 그레이드는 일격에 점령당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 그 경우 꽉꽉 들어찬 곡식창고는 그대로 자이펀군의 병참이 되지 않는가? 물론 곡식창고에 불을 지르는 농부의 심정은 그 자식을 태워죽이는 심정이겠지. 평소 같으면 아무리 전쟁이라도 그건 말도 안되는 말이야. 하지만 사우스 그레이드의 그 순박한 농부들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 자이펀인들이 불러낸다는 악마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샌슨의 얼굴이 극도로 일그러졌다. 내 얼굴도 비슷하겠지.

"예. 들어봤어요. 제기랄… 그것 때문에 사우스 그레이드의 농부들이 모조리 겁을 집어먹은 겁니까?"

"그렇다구. 그래서 군에서는 어음, 그러니까 손해배상 증서를 발행해서 농부들의 피난을 독려하고 있지."

"손해배상 증서요? 그건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랬나? 흠. 간단한 것이야. 파괴된 전답과 곡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손해배상할 테니 곧장 사우스 그레이드를 떠나라, 이 말이지. 그 증서라는 것이 정말 걸작인데, 손해배상 기간이 무기한으로 되어있어. 한 마디로 언제 갚아줄지 모른단 말이야. 후치 자네가 그 농부들이라면 이 말을 듣고서 웃기지 말라고 그랬겠지? 하지만 정말 눈뜨고 보고 있어도 믿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구. 악마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야, 농부들은 배상증서를 받기도 전에 서둘러 집에 불을 지르고 피난을 준비하는 실정이라네."

맙소사… 지옥이군. 사우스 그레이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는 모양이군. 난 혀를 세차게 찼다. 쯧쯧!

그 자이펀의 무기는 질병을 유발시키는 무서운 파괴력에다가 공포라는 더 무서운 부수 효과까지 발휘하는 모양인걸. 난 막연히, 지금쯤 카알 일행은 임펠리아의 고대광실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상스러운 욕설을 고래고래 퍼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문득 떠올린 생각이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별로 틀린 생각일 것 같지는 않다. 카알은 아마 닐시언 전하의 머리 끄덩이를 붙잡고 싶다는 듯이 손을 떨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겠지.

"뭐요? 피난이라고? 배상 증서? 웃기는 소리! 질병이 발생해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도시 가운데를 조사해서 디바인 마크만 회수하면 전체 의식이 무효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 몇 명이 하룻밤만 조사하면 돼요! 왜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왜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거지? 그게 무서운 무기이긴 하지만 대책이 전혀 없는 무기도 아닌데. 사태를 충분히 설명한 공문을 각 도시와 영지로 발송시켜 이해시키면… 아… 이런 젠장! 충분히 이해시킬 시간이 없겠군. 사우스 그레이드는 주로 농토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곳에 비해 사람들이 좀 듬성듬성하게 떨어져 살고 있지! 아마 우리 고향이 있는 웨스트 그레이드만큼이나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곳이 있다면 사우스 그레이드가 바로 거기일 것이다. 이런 골치 아플 데가 있나!

만일 우리가 겪었던 그것, 일스에서 이루어진 세이크릴라이제이션이 실전 배치 직전의 실험이었다면, 어디 보자. 그 때가 11월 12일이니까 겨우 이 주일 전이군. 시간이 너무 촉급했어. 우리는 바이서스와 자이펀의 전쟁의 가장 긴박한 순간을 여행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간 감각과 실제 시간 감각이 혼동되는걸. 젠장. 카알은 나보단 현명하니까 시간 감각을 혼동하지는 않았겠지. 닐시언 전하의 머리 끄덩이는 전폭적으로 안전하다.

(장담은 못한다. 카알 대신 길시언이 붙잡고 흔든다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니까.)

한과정보 E-mail : jiny74@gmail.com Tel. 2479-1394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오늘의 운세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참고 견뎌야 한다. 72년생 꿈을 갖자. 목표를 확실하게 할 때이다. 계획하고 무조건 실천하라. 60년생 음주운전 금물. 설마하고 한잔한 뒤의 운전은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 컴퓨터 공부를 바로 시작하라. 늦추면 평생 후회한다.



지나친 겉치레 행사나 인사치레는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73년생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집에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다. 61년생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진정 산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라. 자신의 일을 부하직원에게 시키지 말고 수고스러워도 직접 해야 한다.



좋았던 과거를 자꾸 회상하지 마라. 현실을 직시하고 정진하라. 74년생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라. 이제는 자신이 부모님을 돌봐야 할 때. 62년생 비정상적인 이성교제는 큰 후회와 후유증을 남긴다. 50년생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보자. 그들도 부모와 대화의 시간을 갖길 바라고 있다.



진주를 돼지에게 맡기면 먹혀버리니 대상을 골라서 주어라. 75년생 스스로를 낮추지마라. 좀더 기다리면 좋은 상태가 된다. 63년생 선물은 마음으로 하여 작게 하라. 이권이 개입되면 탈 난다. 51년생 공금을 축낼 위험이 있으니 정도를 잊어서는 안된다.



사업을 확장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손대지 말라. 그리하면 길하다. 76년생 설계에 문제가 있으니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64년생 이사는 당분간 생각지 말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차라리 낫다. 52년생 부동산 거래로 재물이 생기나 중간에 말이 많아 고생이다.



쓸데없는 가지를 과감히 처내야 할때. 성의로써 임할 것. 77년생 좋지 않은 친구는 훗날의 재앙이 된다. 그의 말투를 주시하라. 65년생 감언이설에 속아서 스스로의 비밀을 드러낼 우려 있다. 53년생 부부의 불화가 심하다. 내쪽이 너무 강해서이니 자중하시라.



상대할 적들이 많다. 실력과 건강이 승패를 좌우한다. 싱글의 경우 삼각관계가 아슬아슬. 정신적 건강으로 무장, 승패를 좌우한다. 66년생 사회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자식 커 가는 재미로 이겨낸다. 54년생 때를 놓치지 말라. 곳곳에 내사람을 만들어 둘 좋은 기회이다.



너무 눈치만 보는 에스맨은 안된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출세길이다. 79년생 마음의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유흥은 이제 그만. 남씨성을 조심하라. 67년생 그동안 닦아 온 숨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 보일 기회가 왔다. 55년생 대인관계의 매너가 좋아 사람들이 따른다.



안정된 생활속에서 나태해질 위험이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니 곧 정상 괘도에 오른다. 80년생 자기 잘난 맛에 도취되어 즉흥적 기분으로 낭비가 우려됨. 68년생 깔끔한 인사성에 윗분 눈에 들게 됨. 부부금슬 비아그라 필요 없음. 56년생 부동산 업자는 좋은 매매건이 나온다.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라도 오해를 일으킬 행동은 하지 마라. 81년생 가까운 친구라도 말을 가려서 하지 않으면 싸우니 주의. 69년생 영업자는 중개인의 실수로일을 망치니 ㅇ,ㅎ 성을 조심하라. 57년생 사업에서 돈이 쏟아지나 이성을주의하지 않으면 가정이 위험. 집안에 슬픈 일이 생길 듯.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려운 일을 척척해 나간다. 싱글은 연인과 즐거운 데이트가 재물 분실로 깨질 수 있으니 주의. 70년생 회사에서 동료들과 불신으로 인하여 업무 진행이 어려우니 주의. 58년생 조상분묘이장하는 일로 말다툼이 있으니 주의.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가장 편안한 휴식처는 가정이다. 가정이 화평해야 만사가 잘 된다. 71년생 금전 거래. 주식,증권 투자는 금물이니 하지마라. 59년생 가정불화에다 건강악화되니 마음을 평안히 하라. 어두운 터널을 지니고 아우토반 질주다. 의심받을 행동으로 부부싸움을 조심하라.

만 화



한과정보 E-mail : jiny74@gmail.com Tel. 2479-1394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교 민 장 터

교민장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과테말라 거주 한국 교민들을 위한 무료 장터 입니다

식품생산 및 배달전문 식품점
양도합니다. 위치 최상
(개인사정으로 급매)
4739-6294

피아노..탁구대 팝니다

연락처 : 5717-8099

혼다 pilot 2016년식
Q285,000 네고가능
3090-0101

진돗개 구합니다.

연락처 : 5693-7931

Parque 11. 고급아파트 세놉니다
방 2. 주차장 2. 헬쓰장. 수영장.
Zona 11. 월세 Q3,750. 관리비
Q765(수도료포함) 5466-8626

아헨시아 에서 신차 구매
2000cc , 스틱 , 가솔린
검정색, 47,000km
가격 Q 40,000, 3009 -6222

전기 장판 2M-1.5M
220V(Q700)
카패트2M-1.5M(Q200)
5890-5002

Santa María de las Charcas
세 놉니다.
$750 (관리비 포함) 30평 방 3개,
1년 새아파트 5819-8100

기아 쏘렌토 2011년식
주행거리 80724km
그리스 7만 껫짤
전화번호 30436864

갈색 천 소파 2,3인용
흰색 그릇 정리장
의자 2개 판매합니다
3315-8191

한국 및 중국산 마스크 삽니다
..(수량관계없이)
꼭 파실분만 연락바랍니다
카톡..3589 ㅡ 9299

HONDA CR-V(2017년식)
아헨시아 20,000KM Q160,000
3384-5503

14 인치 삼성 노트북 판매
저렴, 2 천케찰
전화 4587-3834

귀국으로 인해 살림살이 전제품
팝니다. 침대,드럼세탁기,식탁,
냉장고(3도어),TV,기타 주방용품
5516-4987

폭스바겐 Jetta (제타)
2014년식 50,500K 무사고
Q67,000
Tel 3083-9459

웰시코기 3개월, 수컷 강아지
팝니다. A급 혈통 , 마이크로 칩 ,
예방접종 2번 , Q10,000
5545-5772

급매
소나 1 뿌에블리도 근처
잡화가게 팝니다
2221-2326 5576-1316

KIA SORENTO 250cc 4/4
아헨시아 디젤
Q30,000
5534 --5559

Young Sik An DPI 찾아가세요
Servi restaurante에서
한국분의 DPI를 보관중이니
찾아가세요.

Con. Narnajo San Miguel
Torre 1 세놉니다. Q4,500, 6층,
89.05m2, 방 3개,
2년5개월 새 아파트 / 5951-3048

mazda 5 (7인승)
2017년식 (Agencia)
주행거리 : 26,550km
$12,500 / 4064-2941

구 인 / 구 직

직장구함
수출 내수
재단 및 샘플 관리원함
전화 4783-5372

**교민장터에 기재되는 내용의
사진을 첨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내용과 사진을 보내주세요**